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口述 資料를 活用한 歷史 授業 方案

- 濟州 4·3 事件을 中心으로 -

指導教授 具 萬 玉

慶熙大學校 教育大學院

歷史 教育專攻

朴 英 基

2010년 2월

口述 資料를 活用한 歷史 授業 方案

- 濟州 4·3 事件을 中心으로 -

指導教授 具 萬 玉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慶熙大學校 教育大學院

歷史 教育專攻

朴 英 基

2010년 2월

朴英基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主審教授 (印)

*副審教授 (印)

*副審教授 (印)

慶熙大學校 教育大學院

2010년 2월

國文抄錄

口述 資料를 活用한 歷史 授業 方案

- 濟州 4·3 事件을 中心으로 -

慶熙大學校 教育大學院

歷史教育專攻 朴英基

19세기 랑케로부터 시작된 實證主義 歷史學은 한동안 역사학의 研究 方法論에서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처럼 보였다. 文獻 史料의 科學的 檢證은 역사학의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었으며, 文獻으로 기록되어진 史料만이 역사 연구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信念은 역사 연구자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믿음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여겨지던 實證的 역사학은 그 限界와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타 학문들과의 交流를 摸索하기 시작했다. 사회 구조를 파악하고 특정 엘리트 계층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던 역사학은 사회과학 계열의 학문들과 融合하며 다양한 연구 방법들을 이끌어 내기 시작했다. 특히 人類學과의 遭遇는 고대로부터 命脈을 유지한 구술사를 역사학의 한 분야로 재등장시켰다. 구술 자료를 활용한 역사 서술은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가능하게 했으며 그 동안 看過되었던 수많은 목소리들을 歷史의 전면에 등장시키는 契機를 만들어냈다.

한국에서 1990년대 본격적으로 시작된 구술사 연구는 서양의 구술사 이론들을 受容하면서 활기를 띠게 되었다. 과거 政治的 입장에서 抑壓받았던 사회 문제를 중심으로 대부분 眞相 糾明의 형태를 띠고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가 바로 국가적 차원에서 특별법의 制定과 眞相 調査가 이루어진 제주 4·3 사건이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제주 4·3 사건은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한국 전쟁 다음으로 그 피해의 정도가 컸던 悲劇이었다는 점을 排除한다 하더라도, 남한 내부의 단독 정부 수립을 둘러싼 의견 대립으로 인한 내적 葛藤이 원인이었다는 점, 葛藤의 解消가 武力으로 인한 強硬 鎮壓의 형태를 띠었다는 점, 이러한 과정에서 人權은 철저히 蹂躪되고 많은 일반인들이 虐殺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이 隱蔽되어 오랜 시간동안 真相 糾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은 제주 4·3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浮刻시키며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중요성을 가진 제주 4·3 사건을 학생들은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연구가 시작되었다. 국사 교과서와 근·현대사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는 제주 4·3 사건의 내용을 分析하였으며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제주 4·3 사건의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分析된 결과를 통해 학생들이 교과서로 학습하는 제주 4·3 사건은 그 내용이 불충분함을 알 수 있었다. 檢·認定 교과서로 분류된 근·현대사 교과서에서는 각 출판사마다 제주 4·3 사건의 내용을 달리 하고 있었으며 사건의 발생 자체가 서술되지 않은 교과서도 존재했다. 이러한 점들은 교과서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 수업이 역사적 사실의 확인이나 구체적 내용을 이해하는데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역사 수업의 代案的 方法으로 구술 자료를 활용한 역사 수업을 제시하였다.

구술 자료를 활용한 역사 수업은 학생들에게 구술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구술 자료의 수집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역사가의 입장에서 자료를 다루는 경험을 가질 수 있으며 제주 4·3 사건에 대한 추가적 지식을 習得할 수 있다. 또한 수집된 구술 자료를 바탕으로 수업을 재구성하여 교과서에 나타나 있지 않은 사건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

역사학이 사회과학 분야의 학문들과 融合하여 다양한 형태의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역사 교육은 과거의 학습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과거 역사 수업에서 이루어져왔던 교과서 중심의 暗記 형태는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단순한 사실의 나열과 그것을 암기하는 방법의 역사 수업은 우리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다양한 사고력과 역사적 상상력을 길러야 할 학생들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 또한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 시대를 이해하며 批判 意識

을 涵養하고 올바른 價値觀을 지닌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부족함이 많다. 이러한 역사 교육의 현실에서 구술 자료를 활용한 역사 수업 방법은 학생들에게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다양한 觀點을 제공할 수 있으며 역사적 상상력을 길러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교과서에 서술되어있지 않은 이외의 사실들을 학습함으로써 역사 사건을 다양한 측면에서 眺望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된다.

제주 4·3 사건 이외의 다양한 구술 자료들을 수집하고 연구하는 역사학계의 노력은 역사 교육에도 그대로 전해져야 한다. 다양한 소재와 방법을 통한 역사 수업은 학생들에게 역사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건강한 역사 認識과 批判的 思考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目 次

I. 서론	1
II. 구술 자료의 정의와 연구 현황	8
1. 구술 자료의 정의와 의미	8
2. 구술 자료에 대한 연구 현황	11
1) 미국의 구술 자료 연구 동향	12
2) 한국의 구술 자료 연구 동향	15
III. 교과서의 제주 4·3 사건 서술 분석	21
1. 국정 교과서 및 검·인정 교과서 분석	21
1) 단원적 분석	22
2) 서술 분량적 분석	24
3) 서술의 질적 측면 분석	33
2. 대안교과서 분석	35
IV. 구술 자료를 활용한 역사 수업	40

1. 역사 수업으로서의 구술 자료 수집	40
1) 사전조사	41
2) 실제조사(면담)	44
3) 녹취문 작성 및 보충조사	44
2. 구술 자료를 활용한 역사 수업 모형	46
V. 결론	54
참고문헌	57
ABSTRACT	65

表 目 次

<표-1> 제주 4·3 사건을 포함하고 있는 단원명	23
<표-2> 교과서 속에 나타난 제주 4·3 사건의 서술 분량	31
<표-3> 교과서 속에 나타난 제주 4·3 사건의 개요	33
<표-4> 구술 자료 수집 과정	41
<표-5> 구술 자료 수집 방법	45
<표-6> 제주 4·3 사건의 개요	47
<표-7> 기록별 인명피해 숫자	48

I. 서론

역사는 과거의 인간이 살아온 자취를 다루는 학문이다. 하지만 이전의 역사학은 대부분 사회의 거대 構造를 파악하는데 주력하였고 특별한 존재감을 가진, 중요한 인물로 認識되는 인간의 자취만을 역사에서 밝혀내려는 課題로 삼았다. 이렇듯 기존의 역사학에서는 특정 계급 이상의 인간이나 社會構造에 영향을 끼친 인간만을 探究의 對象으로 삼았고 그 이외의 인간은 모두 ‘백성’, ‘민중’, ‘대중’, ‘농민’ 등등의 集合名詞로 표현하여 왔다. 이는 實證的인 방법을 통해 역사를 해석하려는 연구 방법의 限界로 인식될 수 있다.¹⁾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서 歷史學은 인간의 모습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歷史學이 社會科學分野 등 여타 학문들과 接木되기 시작하면서 역사학자들은 새로운 概念과 理論들을 받아들여 왔다. 특히 人類學에서 사용되는 구술을 통한 연구가 受用됨으로써 과거 대중들의 삶을 연구하는 文化史 연구가 활기를 띠며 증가했다.²⁾

이렇게 구술 자료를 이용한 역사서술이 새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구술의 전통은 민간 설화나 민요, 지역 고유의 문화 敍事에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 또한 초기의 역사 서술이 구술 자료에 바탕을 둔 것임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서양 역사학의 시초라 할 수 있는 헤로도투스나 투키디데스 뿐만 아니라 동양에서의 사마천, 일연 등은 그들의 역사서에 구술 자료를 활용하였다.³⁾ 최근 국내에서도 한국전쟁이나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기억’연구나 ‘생애쓰기’, ‘생애사’

1) 랑케로부터 이어지는 실증주의사학은 철저한 사료의 검증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남겨진 사료는 결국 지배계층과 같은 지식인계층이 남겨 놓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일반인들로 인식되는 인간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삶이나 주변의 모습을 글로 남겨놓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에도 불구하고 해석된 역사에서는 그 모습을 찾아내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 Georg G. Iggers 저, 임상우·김기봉 역, 『20세기 사학사』, 푸른역사, 1998, p. 158~159.

2) Lynn Hunt 저, 조한욱 역, 『문화로 본 새로운 역사: 그 이론과 실제』, 소나무, 1997, pp.17-31.

3) 헤로도투스는 페르시아 전쟁의 목격자를 찾아 증언을 바탕으로 검증하면서 ‘history’를 기술하였으며,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전쟁 역시 관련자의 증언을 근거로 역사를 기술한 것이다. 이러한 구전설화나 목격자의 활용은 동양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마천의 『사기』나 일연의 『삼국유사』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류방란, 「구술사 연구의 방법과 활용」, 『한국교육』 25, 한국교육개발원, 1998, p.34.

등의 이름을 단 論文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支配階級의 主流史로 인해 가려져 있던 빈민, 노동자, 농민, 여성, 피학살자 유가족 등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⁴⁾

구술 자료는 映像과 결합하여 새로운 자료로 변화하기도 하였다. 2005년 8월 9일부터 14일까지 KBS는 “광복 60주년 특별기획”으로 ‘8.15의 기억’을 2개 시리즈로 나누어 방송했다. ‘8.15의 기억’은 8.15 광복을 두고 한국과 일본의 시각차를 照明한 다큐멘터리로서, 프로그램은 개인의 기억에 土臺를 둔 구술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⁵⁾

또한 영화에서도 구술 자료를 활용해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 국내에서 김동원 감독이 12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만든 <송환>이라는 영화는 한국전쟁 이후 북한으로의 歸鄉을 원하는 사회주의자들이 얼마 전까지 남한에 抑留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낸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이다. 그리고 헐리우드에서 제작한 전쟁 영화 <밴드 오브 브라더스(Band Of Brothers)>는 모두 생존자의 구술과 역사적 사실들을 영화로 재구성한 것이다. 총 10부작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는 매 편의 도입부와 마지막 부분에 생존자들이 직접 당시의 상황을 구술함으로써 리얼리티를 浮刻시키고 있다. 또한 제주 4·3 사건을 다룬 조성봉 감독의 영화 <레드 헌트(Red Hunt)>⁶⁾는 당시 ‘빨갱이’로 내몰려 3천여 명이 전국 각지의 형무소에서 사형을 당했는데 이 중에 집행중지로 죽음을 모면한 사람들이 다시 제주도로 돌아와 같은 기억을 共有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담았다. 또한 여기에 과거에 대한 증언을 등장시킴

4) 한국구술사연구회, 『구술사 : 방법과 사례』, 선인, 2005, p.47.

5) 시리즈 1, 『우리는 8.15를 어떻게 기억하는가』
- 2005.8.9(화) ~ 8.12(금) 22:00~23:00 (KBS 1TV)
1편 - TV 구술사 ‘친지가 벌컥 뒤집어진거여’
2편 - TV 구술사 ‘홀랑 맨몸에서 시작했제’
3편 - TV 구술사 ‘용케 살아남았는기라’
4편 - TV 구술사 ‘땀 땀에 그렇게 싸웠을고’
- 2005.8.13(토) ~ 8.14(일) 20:00~21:00 (KBS 1TV)
1편 - 기억의 블랙홀 천황
2편 - 히로시마의 두 얼굴

김귀옥, 「한국 구술사 연구 현황, 쟁점과 과제」, 『사회와 역사』 71, 한국사회사학회, 2006, p314에서 재인용.

6) 제주 4·3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로 홍익대학교에서 열린 제2회 인권영화제(1997)에 상영되었으나 경찰의 개입으로 조기 종영하였다. 이후 이 영화는 98년 베를린 영화제 영포럼 부문에 상영되었다. 줄거리에 대한 이해는 ‘한국인권행동’ 홈페이지를 참고하였다. <http://www.hrkorea.org>

으로써 당시 사건의 모습들을 생생하게 재구성한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얼마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사망하였다”와 같은 피해 숫자와 사실들의 나열로 파악했던 제주 4·3 사건의 참혹한 당시 모습을 追體驗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위에서 살핀 것처럼 구술로 이루어진 자료들은 과거 構造史的 觀點에서 看過하거나 소홀했던 인간의 경험이라는 측면을 浮刻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문헌에서 배제되거나 감춰진 사건들, 느낌, 태도와 생활방식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더욱 생생한 과거를 재현할 수 있도록 한다.⁷⁾

이러한 구술 자료를 활용한 역사 사건의 재구성은 역사를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에게도 역사에 대한 흥미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서양에서는 구술사의 장점을 살려 교육에 다양하게 활용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까운 근·현대사에서 시작해 현재에 爭點이 되고 있는 사회적 사건까지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학습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지역 박물관에서도 다양한 구술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⁸⁾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의 실제 현장인 학교에서 역사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수업의 대부분은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타 교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실습실이나 실험실과 같은 공간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역사 수업은 국가에서 인정한 교과서만을 교재로 활용하였으며, 교과서에 明示되어 있는 ‘객관적이며 올바른 지식’을 교사가 학생에게 전달하고 학생들은 전달된 내용을 습득하는 것으로 역사 수업은 이루어져 왔다. 교사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학생들에게 시험 준비를 위한 단편적 지식을 전달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고 학생들은 그러한 역사 수업을 통해 단답형 혹은 객관식 시험에 대비한 지식만을 습득하고 있다.

교과서에서는 대부분 “언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식으로 역사적 사건에 대

7) 엄미경, 「전쟁연구와 구술사:아래로부터의 한국전쟁연구를 위한 새로운 방법론」, 『동향과 전망』 51, 한국사회과학연구소, 2001, p. 128.

8) Marjorie L. Mclellan, Case Studies in Oral History and Community Learning, *Oral History Review* 15, 1987, p. 128. ; 이주은, 「구술사를 활용한 역사학습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p.2에서 재인용.

하여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표현된 사건들 중 일부는 현재까지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명확한 사실에 대한 파악이 불분명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한 사실들 중에는 오늘을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요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이 論文에서 다룰 ‘제주 4.3사건’의 경우 激動的인 시대 상황에서 수만 명의 사상자와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 커다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서는 단순히 몇 줄 되지 않는 분량으로 서술하거나, 사건이 일어났다는 표기만 하고 있다. 이 또한 교과서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 배우는 학생들에게 더욱 混亂을 주고 있다.

교과서는 感情移入的인 내용을 포함하거나 어느 한 가지 주장에 依據해 내용을 서술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로만 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실에서 학생들은 千篇一律的 방식으로 역사적 사실들의 나열을 暗記하는 방식으로 역사를 학습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역사 수업에 대하여 “외울 것이 너무 많다”, “내용이 너무 어렵다”라는 이유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교과서로 이루어지는 역사 수업이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 의지를 低下시키고 학습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역사 수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학교 현장의 일부 교사들은 교과서 이외의 것들로 이루어지는 수업 방법들을 생각하였다. 그러한 고민으로 교과서만으로 이루어졌던 역사 수업의 방법 이외에 다양한 방법의 수업 사례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대표적인 역사 수업의 수업 모형으로는 역사신문 만들기⁹⁾, 극화 학습, 토론 학습, 교과서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강의식 수업, 교사가 개별적으로 학습지를 제작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¹⁰⁾ 학생들 스스로가 알고 있는 역사 사실을 구조화하여 자신의 입장에서 새롭게 재구성하는 역사 글쓰기 등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방법의 역사 수업을 살펴보면 역사적 사건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로써 수업을 재구성하거나, 사건 자체

9) 역사신문은 1995년 우지향이 중심이 되어 계획, 제작된 신문 형식의 역사 교재이다. 사실 위주의 체계적 서술로 이루어진 개설서나 교과서의 어려움과 흥미를 유발하지만 체계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한 이야기 형식의 역사서를 보완하여 만들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역사속에서 발생했던 사건과 인물, 사회 현상 등을 현대의 신문 형식으로 재구성하여 그 이해를 돕고 있다. ; 역사신문편찬위원회, 『역사신문』, 사계절출판사, 1995.

10) 학습지를 통한 역사 수업은 교사가 교과서 이외의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업 교재를 만들어 수업을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것은 교과서와 또 다른 교재로 학생들이 흥미를 갖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가 수업의 주제가 되고 있다. 역사 사건을 경험했던 대다수 사람들의 목소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학생들은 역사적 사고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까?11) 기존 교과서 중심의 역사 교육의 문제점을 認識하고 제시되었던 대안 가운데는 대중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는 구술 자료를 활용하여 수업에 적용한 예는 찾아볼 수 없었다. 실제로도 학교 현장에서는 구술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앞서 언급한 기존 역사 수업 방법과 代案的 수업 방법들은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는 要因만을 다루고 있을 뿐, 이러한 要因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다루지 않고 있음을 反證하고 있는 것이다.12)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교과서 중심의 역사 학습과 대안적 학습 방법은 결코 올바른 역사 학습이라 볼 수 없다.

이 論文에서는 역사 학습의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구술 자료를 활용한 역사 수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술 자료를 활용한 역사 수업 방법은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반복되고 있는 역사교과서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구술 자료를 활용한 수업 방법은 교과서에 나타나 있지만 사건의 발생 자체에만 머물러 있거나 나열적인 내용을 追體驗을 통한 간접적인 경험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먼 과거의 일로 여기며 스스로와는 무관한 일로 생각했던 과거의 사실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 준다. 그리고 과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었던 사람들의 심성, 망탈리테를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역사적 상상력을 가능케 하며, 사건의 因果關係와 더불어 실제의 모습에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교과서에 서술된 模糊하거나 歪曲, 縮小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는다.13)

11) 역사적 사고력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여기서는 김한중이 규정한 '역사적 탐구 기능'과 '역사적 상상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김한중, 「역사적 사고력의 구성 요소와 역사 수업의 발문」, 『사회과교육』 29,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1996, p.87.

12) 김한중 외, 『한국근현대사 교육론』, 선인, 2005, p. 42.

13)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활용되고 있는 근·현대사 교과서는 검·인정 교과서로서 각 교과서마다 역사속의 사건을 기술하는데 있어서 각각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는 각기 다른 저자의 견해 혹은 편향된 주장이

본 論文에서는 구술 자료에 대한 정의와 국내외의 연구 동향, 제주 4·3 사건과 관련된 구술 자료의 연구 동향에 관하여 살펴보고 구술 자료를 활용한 역사 수업의 모형을 제시할 것이다. 본 論文은 그 내용의 범위를 근·현대사로 한정하며 ‘제주 4·3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을 밝혀 둔다.

본 論文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수업에서 역사교과서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구술 자료가 메울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기존 역사교육에서 疏外 혹은 排除되었던 ‘일반 대중’의 삶에 대하여 구술 자료의 내러티브적 측면이 갖는 긍정적 효과를 역사수업에 接木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역사 학습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구술 자료란 과연 무엇인가?

둘째, 교과서에 서술된 ‘제주 4·3 사건’의 내용은 어떠한가?

셋째, 구술 자료를 활용한 역사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위와 같은 연구의 주제를 위해 본 論文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II장에서는 구술 자료란 어떻게 정의되며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세계에서 구술 자료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研究動向과 한국의 研究動向에 대하여 살펴 볼 것이다. 한국의 구술 자료 研究動向에는 이 論文에서 한정적으로 다루게 될 제주 4·3 사건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다.

III장에서는 현재 학생들이 학습하고 있는 국사 교과서와 검·인정 근·현대사 교과서, 그리고 대안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는 ‘제주 4·3 사건’을 각 교과서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교과서 안에서 ‘제주 4·3 사건’이 어떤 단원에 포함되어 다루어지고 있으며 얼마만큼의 다양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서술 내용은 학생들이 사건의 과정과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記述되어 있는지를 비교·분석할 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국정, 검·인정 교과서 이외에 역사 교과서의 代案的 모형으로 만들어진 ‘대안 교과서’를 함께 비교하여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구술 자료를 활용한 역사 학습은 이러한 문제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역사 학습 과정의 틈을 메우는데 활용될 수 있다.

통하여 학생들이 배우는 근·현대사 교과서의 부족한 점을 확인하고 더욱 풍부한 역사 학습에 필요한 자료와 내용을 摸索할 수 있을 것이다.

IV장에서는 앞서 III에서 살핀 ‘근·현대사 교과서’분석을 통해 기존 교과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代案으로서 구술 자료를 활용한 역사 수업의 모형을 제시할 것이다. 실제로 학생들이 구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을 담을 것이며, 수집된 구술 자료를 바탕으로 교실에서의 수업 모형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그 동안 이루어졌던 교과서 중심의 역사 수업에 하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다. 구술 자료를 활용한 역사 수업 방법은 학생들에게 교과서에서 습득할 수 없는 다양한 목소리를 제공할 것이다.



II. 구술 자료의 정의와 연구 현황

1. 구술 자료의 정의와 의미

일반적으로 역사학 고유의 연구방법은 史料에 입각하여 사실을 인식하는 것¹⁴⁾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볼 때 史料는 역사를 인식하고 재구성 하는데 가장 중요한 재료이며 때로는 역사 그 자체로 여겨져 왔다. 과거 역사학에서 史料로 규정되는 것들에는 설화나 신화, 민담, 구전 등이 포함되었다.¹⁵⁾ 하지만 랑케로부터 이어지는 實證主義 역사학에서는 史料의 과학적인 考證을 통해서만이 과거의 정확한 사실에 다다를 수 있다고 여겨졌다. 이러한 이유로 19세기 후반부터는 史料를 통해 역사를 밝혀내는 것이 역사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實證主義 역사가들이 考證을 통해 역사적 사실이라고 밝혀내는 文獻은 대부분 문자를 전유할 수 있었던 소수의 지식인과 지배계층의 입장에서 서술된 것이 대부분이다. 현대 사회에 이르기 전까지의 백성, 민중 혹은 대중으로 일컬어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자를 습득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본다면 文獻에 나타나는 역사적 경험과 사건들은 지극히 일부분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역사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과거 경험에 대한 부분적 기록으로 과거의 사회, 문화를 재구성하는 것이고, 이러한 재구성을 통해 과거 사건들의 因果關係를 추측해내는 것이다.¹⁶⁾ 이러한 논점으로 본다면 결국 史料를 바탕으로 한 역사 연구는 과거 사실의 극히 일부분을 밝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사료가 갖는 한계점을 보완해 주는 것이 바로 구술 자료이다. 구술 자료를 통해서 문자 史料에

14) 정선영 외, 『역사교육의 이해』, 삼지원, 2005, p.43.

15) 앞에서 언급했듯이 헤로도투스나 투키디데스 등과 같은 역사가들은 문자 사료와 더불어 구술을 기초로 역사서를 저술하였다.

16) 윤택림은 역사적 사실은 그 주체가 어떠한 성향을 가졌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역사가의 임무는 어느 것이 더 정확한 역사인가를 찾기보다 각 주체들이 주장하는 진실이 왜 진실이 되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 윤택림, 「역사인류학자의 시각에서 본 역사학」, 『역사문제연구』 제6호, 한국문화인류학회, 2001, p.220.

서 채우지 못한 기록을 보완하거나 수정, 혹은 비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술 자료가 史料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이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구술 자료의 수집은 그것을 이용하기 시작한 나라마다, 학문마다 제 각기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졌다.¹⁷⁾ 구술 자료는 口述者가 말로 이야기한 내용이 소리나 문자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오랜 역사를 거쳐 口傳되어 온 설화, 자기가 체험한 특정 역사적 사건이나 경험에 대한 구술 증언, 개인이 살아 온 이력을 진술한 구술 생애사, 특정인이 말로 이야기한 것을 제 3자가 採錄하여 정리한 회고록이나 자서전, 편집된 인터뷰 기사 등도 넓은 의미에서 구술 자료에 포함된다.¹⁸⁾ 하지만 이러한 구술 자료는 史料로서의 가치를 쉽게 인정받기 어렵다. 이는 ‘개인의 주관적 기억’이라는 구술의 특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역사 연구에서 史料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헌 자료를 보충하거나 확인하는 정도로 쓰인 것이 고작이었다.

구술 자료가 史料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 역사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구술 자료는 信賴性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구술 자료가 말하는 사람의 편견 혹은 주관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술사가들은 역사 서술에서 文獻 史料가 구술 자료보다 더 큰 信賴性을 지닌다고 보는 것은 문자에 대한 신비화와 다를 바 없다고 論駁한다.¹⁹⁾ 實證主義 역사학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객관성은 문자로 기록되었다는 이유로 충족될 수 없다. 어쩌면 기존 實證主義 역사학에서 주장했던 “역사학의 과학적 해

17) 보통 현대에 이르러 본격적인 구술 자료의 수집은 미국을 그 중심으로 보고 있다. 20세기에 이르러 미국에서는 새로운 역사학으로서 구술사가 부각되던 시점이었으며 시카고학과 사회학자들을 중심으로 생애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시작했다. 이 시기와 맞물려 1930년대 대공황시기 언론인과 저술가를 돕는 정책의 일환으로 ‘연방저술가프로젝트(Federal Writers Project)가 가동되면서 이를 계기로 미국의 민속, 문학, 예술 등에 대한 다양한 구술 자료가 수집되었다. 구술사의 전통이 오래된 영국의 경우에는 19세기 이래로 오랜 사회조사 경험, 노동자 계급이 스스로 자전(自傳)을 쓰거나 일기를 쓰는 습관, 역사가들에 의한 다양한 학문분야의 흡수, 성인교육의 정착 등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 권미현, 「구술사료의 기록학적 관리방법 연구」, 『기록학연구』 10, 한국기록학회, 2004, p.113.

18) 허영란, 「구술과 문헌의 경계를 넘어서」, 『현황과 방법, 구술·구술자료·구술사』, 한국사 연구지원 보고자료집, 국사편찬위원회, 2004, p.8.

19) 통계자료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이는 문헌 자료마저도 제작 과정에서 자의적인 요소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집계한 각종 실적 통계라 할지라도 그 제작 과정에 작용하는 행정적 관행, 상급 기관과 학교간에 이루어지는 일상적 관행과 이러한 관행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 등이 그것이다. ; 류방란, 앞의 글, p.36~37.

석을 통한 객관적 사실로의 접근”은 영원히 찾아낼 수 없는 결과물에 가깝게도 보인다.²⁰⁾ 역사연구의 해석적 성격은 일찍이 바르트(Roland Barthes)에 의해 제기되었는데 그는 역사학이 言語學的으로만 존재하는 사실들을 진실로 전달하려는 허위와 역사적 담론의 허구적 성격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그에 의하면 객관적 역사에서 역사적 사실은 史料가 명백히 존재함으로써만 생성된다는 것이다. 이를 逆說的으로 해석하면 史料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역사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는 역사적 사실은 과거의 현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미화하는 것, 즉 해석일 뿐이라고 주장한다.²¹⁾ 이러한 주장에 비춰 볼 때 결국 역사학에서 文獻 史料는 그 史料를 다루는 역사가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史料에 접근했는지 혹은 史料를 재해석하고 활용하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주관적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렇듯 文獻으로 이루어져 있는 史料에서도 그 주관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주관성은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살펴봄으로써 그 ‘객관성’을 확보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객관성’이란 하나하나의 주관이 다수화하여 공통된 認識을 형성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객관성이라 할 수 있겠다.

또 다른 구술에 대한 문제 제기는 “기억은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라는 것이다. 기억이 과연 얼마나 歪曲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心理學의 영역에서 빌려올 수 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일상적인 경험이나 惰性化된 기억은 회미해지지만 충격적인 사건이나 어떤 사건의 처음과 같은 기억은 많은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명료한 편에 속한다. 또한 “구술자의 지적 수준에 따라 기억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추가적인 문제에서도 구술 자료의 수집 과정을 통해 그 대답을 導出할 수 있다.²²⁾

20) 과거 사실에 대한 객관성은 먼 과거가 아닌 현재에서도 찾기 어렵다. 예를 들어 어제 일어났던 정치적 사건 혹은 사회적 문제를 오늘의 신문이나 뉴스에서 접할 때 어느 매체에서 혹은 어떤 성향의 기자나 논설위원이 다루었느냐에 따라 그 사건은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21) Roland Barthes, "Historical Discourses", in M. Lane. ed., *Introduction to Structuralism*, Basic Book, 1970, p.153. ; 윤택림, 앞의 글, p.225에서 재인용.

22) 과거 빨치산에 관련된 구술 조사 과정에서 학습 수준이 높은 구술자의 경우 당시 상황에 대한 추상적인 평가와 연상적인 기억을 회고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에 일반적인 구술자들은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모습을 띠었다. 이러한 점들은 기억이 구술자의 지적 수준과는 무관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김귀옥, 앞의 글, p.317~318에서 재인용.

앞서 언급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객관적 사실’에 대한 추구는 다양한 史料를 통해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나가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실제로 소수의 전유물이었던 文獻 史料만으로는 앞서 말한 ‘객관성’에 다가가기 힘들다고 보인다. 이러한 객관성의 추구는 과거를 말하는 다양한 자료들의 조합으로 가까이 다다를 수 있는데 거기에 구술 자료는 文獻 史料와 더불어 史料로서의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술 자료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구술 자료는 영문의 'Oral History'를 뜻한다. 이 'Oral History'는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데 하나는 구술 자료를 통해 역사 서술을 하는 ‘구술사’라는 학문의 영역으로 해석되며, 다른 하나는 구술 사료, 구술 자료, 구술 기록 등으로 번역되는 구술로 이루어진 자료 자체를 의미하고 있다.²³⁾ ‘구술사’는 ‘역사적 재구성의 목적을 위해서 과거 사건의 목격자들을 인터뷰하는 것’,²⁴⁾ ‘어떤 사람들의 기억이 구술을 통해 역사적 자료로서 지위를 부여받는 것’,²⁵⁾ ‘구술을 통해 쓰여진 역사’²⁶⁾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된다. 이렇게 정의된 구술사에 비추어볼 때 구술 자료는 ‘구술사를 연구하기 위한 재료’²⁷⁾로 설명될 수 있겠다. 여기서는 이러한 구술사, 구술 자료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알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구술 자료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과 현재 우리 나라의 연구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구술 자료에 대한 연구 현황

23) 권미현, 앞의 글, p.112.

24) Ronald J. Grele, "Directions for Oral History in the United States," in Oral History: An Interdisciplinary Anthology, David K. Dunaway and Willa K. Baum, eds. (Walnut Creek, CA.: AltaMira Press, 1996, 63. ; 김봉중, 「미국 구술사의 동향과 쟁점」, 『전남사학』 제16집, 전남사학회, 2001, p.188에서 재인용.

25) 김귀옥, 앞의 글, p.316.

26) 이용기, 「구술사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한 제언」, 『역사비평』 58, 역사비평사, 2002, p.365.

27) 구술사의 연구 과정에서 필연적이면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료가 바로 구술 자료이다. 기존 역사학에서 문헌 자료를 역사적 자료로서 인식함과 마찬가지로 구술사에서 구술 자료는 같은 위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 미국의 구술 자료 연구 동향

지금까지 구술 자료에 대한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온 나라는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구술 자료가 수집되어 있으며 구술사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미국에서 구술에 관한 연구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의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구술사가 어떤 위치에 와 있으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살피는데 좋은 指針이 될 것이다.

19세기 미국 역사학에서 조지 뱅크로프트(George Bancroft)로 대표되는 미국의 초기 역사가들은 國民主義적이고 애국적인 발상에 근거하여 역사를 서술하였다. 대부분 미국을 건국한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讚辭로 이루어졌는데 미국의 民主主義가 어떻게 태어났고 그 건국의 主役은 누구였으며 그들의 사상적 배경은 무엇이며, 어떻게 계속적으로 발전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거대서사’로서의 역사였다.²⁸⁾ 하지만 이 시기에 구술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1884년 디블(Sheldon Dibble)이 하와이 원주민들을 인터뷰해 출간한 『샌드위치 제도의 역사(History of the Sandwich Island)』가 있었으며, 뱅크로프트(Herbert Howe Bancroft) 등의 구술 자료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들어 독일에서 시작된 ‘實證主義’, ‘과학적인’ 역사 연구의 바람이 미국에도 그대로 전해졌다. 이러한 랑케식의 역사 연구 방법을 미국에 전한 이는 바로 아담스(Herbert Baxter Adams)였다. 이로 인하여 미국 역사학은 ‘문헌 자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역사 연구 방법이 그 主流를 이루게 되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과학으로서의 역사를 標榜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역사 연구에 實證的 연구 방법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랑케식의 역사학, 즉 전문성을 標榜한 역사 연구가 미국의 역사학계에서 主流를 이루면서 그들은 1884년 ‘미국역사학회(American Historical Association)’를 탄생시켰다. 1885년에는 『미국역사학보(American historical Review)』를 발간함으로써 미국 역사학에서 중심점 역할을 하게 되었

28) George Bancroft 이외에도 Francis Parkman, William Prescott, John Motley, Richard Hildreth 등이 있지만 영향력이나 저술에 있어서 대표적인 인물로 꼽고 있다. ; 김봉중, 앞의 글, p.189.

다.²⁹⁾

이와 같이 미국 내에서 實證史學이 主流를 형성함에 따라 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³⁰⁾ 이러한 비판적 목소리에 의해 1907년 ‘미시시피 계곡 역사학회(Mississippi Valley Historical Association)’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 학회는 1964년에 ‘미국사연구학회(Organization of American)’로 명칭을 바꾸고 학회지로 『미국사연구지(Journal of American History)』를 발간해오고 있다. 이와 맞물려 20세기 초의 미국은 ‘革新主義(Progressivism)’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다. 당시 미국 사회는 自由放任의 資本主義의 성장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일반 평민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에 소수의 역사학자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들은 기존의 엘리트 중심 역사학을 비판하였으며 이러한 비판들로 인하여 1890년 ‘革新主義 學派(Progressive Schools)’가 등장하게 되었다.³¹⁾

革新主義 學派의 영향의 받아 실질적으로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시카고 학파(Chicago School)’였다. 대부분 사회학자로 구성된 시카고 학파는 유럽과 미국에서 생활하던 폴란드 이민자들에 대한 생애사를 集大成하여 단행본으로 출간하였고, 학자 스스로의 체험과 분석을 바탕으로 1929년 『황금 해안과 슬럼(Gold Coast and Slum)』이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이들은 생애사적인 접근을 통하여 빈민, 범죄, 이민 등의 문제로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대도시의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해결책을 찾고자 하였다.³²⁾

1930년대 대공황시기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연방작가프로젝트(Federal Writer's project)’를 실행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20세기 초 구술사 연구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 미국 정부는 많은 저술가들을 고용하였고, 이를 통하여 흑인노예, 노동자, 부유층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애사 인터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黑

29) 이보형·황해성, 『미국 역사학의 역사:역사사를 통해 본 미국사 서술의 변천』, 비봉출판사, 2000, p.7~19.

30) 비판적 시각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역사서술이 역사학을 일반 대중과 격리시키는 학문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다는 것과 역사의 연구 대상이 미국의 국가 정체성이나 영웅적 인물 등을 다루는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 김봉중, 앞의 글, p.192~194.

31) 대표적인 혁신주의 학자로는 Charles A. Beard, Carl L. Becker, Frederick Jackson Turner, Vernon Parrington 등이 있으며, 이들은 역사학을 전문적 역사가에서부터 대중으로의 학문으로 만드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 김봉중, 앞의 글, p.193~195.

32) 김봉중, 위의 글, p.197.

人史' 연구에 중요하게 활용되었다. 이 시기와 맞물려 1948년 네빈스(Allan Nevins)는 현재까지도 세계적인 구술사 연구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콜롬비아 대학의 '구술사 연구소(Oral History Research Office)'를 세워 다양한 구술 자료를 채록하였다. 또한 네빈스에 의해 'Oral History'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게 되었다.³³⁾

제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의 역사학은 잠시 回歸적인 모습³⁴⁾을 보였지만 1960년대에 이르러 각종 사회 문제와 함께 신좌파(New Left)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신좌파 운동으로 인하여 지배 談論에서 제외되었던 흑인, 소수 민족, 여성, 도시 빈민, 인디언 등의 사회 약자들이 다양한 談論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와 함께 1964년 톰슨(E. P. Thomson)의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과 1978년 『과거의 목소리(The Voice of the Past)』가 출간됨에 따라 새로운 역사 서술에 대한 열망이 사회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열망은 터클(Louis Studs Terkel)의 『어려웠던 시대(Hard Time)』, 『선한 전쟁(The Good War)』와, 헤일리(Alex Haley)의 『뿌리(Roots)』 등의 저술로 이어졌다. 특히 『과거의 목소리』는 구술사 연구서로서 현재까지도 구술사의 古典으로 평가받고 있다.³⁵⁾

1966년 민크(Mink)의 주도하에 77명의 구술사 연구자들이 UCLA 회의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구술사 연구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 방향을 摸索하였다. 이러한 성과로 1967년 아덴하우스(Arden House) 회의에서 OHA(Oral History Association)가 창립되었으며, 1973년 구술사 관련 이론과 방법, 연구 논문들을 掲載한 연속 간행물 『Oral History Review』를 출간하기에 이르렀다.³⁶⁾

미국의 역사학에서 구술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 방법은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역사만큼이나 짧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9세기에 독일에서부터 출발한 '과학적' 역사 연구 방법이 主流를 형성하고 역사학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상황에서도 구술이 역

33) 남신동, 「미국 구술사의 발달과 연구 동향」, 『현황과 방법, 구술·구술자료·구술사』, 한국사 연구지원 보고 자료집, 국사편찬위원회, 2004, p.190~191.

34) 제 2차 세계대전, 냉전 체제, 소련의 전체 주의 등으로 인하여 미국 역사학자들은 미국의 정체성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들은 혁신주의 학파에서 주장하는 '아래로부터의 역사'보다는 지도자와 같은 인물에 더욱 초점을 맞추었다.

35) 김봉중, 앞의 글, p.203~205.

36) 남신동, 앞의 글, p.194~195.

사 연구의 재료로서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다양한 사회 현상을 소외 계층으로부터 찾으려는 노력이 있었으며, 초기 미국 형성에 커다란 역할을 한 서부 개척자들과 대중으로부터 찾으려 하였다. 세계 대전, 대공황, 다양한 사회 문제의 浮刻과 사상들의 충돌 가운데서도 아래로부터 이루어지는 구술에 대한 연구는 끊이지 않았으며 그 命脈은 면면히 이어져 왔다. 이러한 다양하면서 끊임없는 노력들이 현재 미국을 세계에서 구술 자료가 가장 풍부하고 구술사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국가로 탄생시켰다.

2) 한국의 구술 자료 연구 동향

우리나라의 경우 구술 자료의 등장이나 구술사는 1920년대 民俗學, 人類學 등에서 口碑傳承이라는 특수한 형태로 시작된 것으로 본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구술 자료가 수집되기 시작한 것은 근·현대사 관련 연구에서 증언이나 생애사가 이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³⁷⁾ 이러한 구술 연구는 1980년대에 들어서 과거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관련하여 현대사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1981년 <뿌리깊은나무>에서 발간된 ‘민중자서전’ 시리즈는 목수, 양반가 며느리, 보부상, 용기쟁이, 길쌈아낙, 소리꾼, 화전민, 농부 등 평범한 사람들의 잊혀져가는 삶이나 사라져가는 전통의 흔적을 남기려는 목적에서 구술자의 생애사를 정리한 것이다. ‘민중자서전’ 시리즈는 현재 구술사에 있어서 고전적 위치를 차지하지만 이것은 출판사의 대중기획물로 출판된 것으로 학술적인 부분에서 큰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³⁸⁾

학술적인 차원에서 구술 자료가 수집된 것은 1980년대 후반인데, 이 시기에는 민주화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현대사의 크고 다양한 사건들의 眞想을 糾明하거

37) 권미현, 앞의 글, p.114.

38) <뿌리깊은나무>에서는 1981년 『제암리 학살사건의 증인 전동례의 한평생 : 두렁 바위에 흐르는 눈물』, 민중자서전 V.1을 시작으로 1991년 『진도 단골 채정례의 한평생 : “에이 짠한 사람!” 내가 나보고 그라요』, 민중자서전 V.20까지 당사자들의 구술을 정리하여 ‘민중자서전’ 시리즈를 출판하였다. ; 허영란, 「구술과 문헌의 경계를 넘어서」, 『현황과 방법, 구술·구술자료·구술사』, 한국사 연구지원 보고자료집, 국사편찬위원회, 2004, p.17~18.

나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기 위한 ‘증언’들의 채록이었다. 1985년과 1987년에 출판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광주 5월 민중항쟁의 기록1, 2』와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가 1990년 출간한 『광주 5월 민중항쟁 사료전집』은 당시 광주항쟁을 겪은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을 수록하여 문제를 대중화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³⁹⁾ 1988년부터 1990년까지 『역사비평』은 ‘한국현대사의 증언’ 시리즈를 연재하였는데 이는 근·현대사 구술 採錄의 본격적인 시작이었다.⁴⁰⁾ 이 시기에 개인이 일반 출판물의 형태로 1989년 출간한 『정순덕』, 1990년 출간된 『조국 : 어느 ‘북조선 인민’의 수기』 등은 픽션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학술적인 가치보다는 대중에게 많이 읽혀졌는데 이것은 당시 현대사에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회적 분위기에 便乘한 결과물로 여겨진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이면서 다양한 구술 자료 수집이 시작된다. 1990년 설립된 정신대문제연구소에서는 일제 강점기에 종군위안부로 끌려갔던 여성들의 구술 자료를 모아 1993년 증언집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을 출간하였다. 이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집으로 이루어져 있는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과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은 일본 정부가 隱蔽하려던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귀중한 자료로 볼 수 있다.⁴¹⁾ 뿐만 아니라 1990년대에는 ‘광주 5·18 민주화 항쟁’, ‘제주 4·3 사건’ 등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구술 자료들이 선보이게 된다. 1990년대 한국 교육사 재정립을 목표로 구술조사를 진행해 온 단체로 서울대학교의 한국교육사고를 들 수 있다. 교육사고에서는 1991년부터 김기석을 중심으로 구술 자료에 대한 수집과 연구가 계속되어져 왔다. 여기서 주로 다룬 구술 자료는 가나안농군학교, 노동자대학, 비전향장기수 생애사 등이 있다.

2004년 한국사 분야에서 가장 정통적인 사료수집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구술 자료의 수집을 본격적으로 수행하면서 한국 역사학의 또 다른 연구 방향에 대한 摸索이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일부 개인이나 특정 사건과 관련된 기관에서 행해지던

39) 김기옥, 앞의 글, p.325~326.

40) 이용기, 「역사학, 구술사를 만나다 :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본 구술사의 현황과 과제」, 『역사와 현실』 통권 71호, 한국역사연구회, 2009, p.294~295.

41) 한국정신대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truetruth.org>

구술 자료의 수집은 이제 그 한계를 조금씩 벗어나 역사학의 새로운 연구 방법으로 제시되기에 이르렀다.⁴²⁾ 2008년 윤택림을 중심으로 創設된 한국 구술사 연구소는 이제까지의 구술 연구를 포함하여 다양한 구술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구술사 관련 학술 연구에 새로운 발전을 摸索하고 있다.⁴³⁾

앞에서 살핀 미국의 구술사 연구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구술과 관련된 연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구술사 연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포함한 연구 성과, 자료의 양 등은 미국에 비해 한국이 상당히 未備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구술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1980~90년대 사회 문제를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최근에 이르러서야 구술 관련 전문 기관이 創設되어 연구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에 반해 미국은 19세기에도 구술 자료를 수집하여 시대를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당시에 實證主義的 역사학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방법의 摸索으로 구술 자료를 활용한 역사 연구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우리나라의 역사학은 구술 자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적극적인 연구와 이에 대한 지원이 時急하다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제주 4·3 사건의 구술 자료 연구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제주 4·3 사건은 한국전쟁과는 또 다른 하나의 慘劇이었다.⁴⁴⁾ 제주 4·3 사건은 수많은 무고한 희생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지 반세기가 지나도록 그 실체가 糾明되지 않았고 희생자들의 명예도 회복되지 못했다. 그 동안 많은 예술가들이 이 비극적인 사건을 형상화하였고 학술적으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眞想糾明을 위한 시민운동도 줄기차게 전개되었다. 제주 4·3 사건에 대한 연구는 대체적으로 증언과 1차적인 史料를 통한 연구서가 주를 이룬다. 前者는 증언 採錄에 관한 것이고, 後者는 증언 등 종합적인 사료를 통한 연구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본 論文은 구술 중심의 연구이므로 여기서는 증

42) 이용기, 앞의 글, p.292.

43) 한국 구술사 연구소 <http://www.oralhistory.kr>

44) 2003년 10월 15일 채택된 정부의 공식 보고서인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 4·3 사건을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과 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언 採錄에 관련하여 구술사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주 4·3 사건에 대한 조사작업은 1960년 4·19혁명 후 ‘국회양민학살 사건 진상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속에서 자극을 받았다. 이 때 1,800명이 신고접수를 하였으나 국회 본회의에 정식 上程되지도 못하고 5·16쿠데타로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제주 4·3 사건에 대한 조사 작업과 증언 조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다.⁴⁵⁾

1960년대 제주 4·3 사건에 대한 증언을 바탕으로 이뤄진 김봉현·김민주의 『제주도 인민들의 4·3 무장투쟁사-자료집』(1963)은 초기 제주 4·3 사건에 관한 구술사 연구의 展望을 열어 준 것이었다. 일본에서 나온 이 책은 연구서라기보다는 증언자료집의 성격을 강하게 띠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막힌 증언과 망각을 강요당한 기억은 바깥 일본에서 제주인들의 증언과 기억을 통하여 소생할 수 있었다. 저자의 직접 체험과 일본 피신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책은 偏向된 認識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이후의 抗爭論과 良民虐殺論의 전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된다.⁴⁶⁾

제주 4·3 사건의 증언은 먼저 소설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維新體制가 破局으로 치닫고 있던 1978년 현기영의 『순이 삼촌』은 그 대표적 예이다. 이러한 문학적 접근은 다른 학술적인 접근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는 문학으로서 학계나 언론계를 자극하여 그 논의를 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다.⁴⁷⁾ 集團虐殺의 상징마을이었던 제주 북촌리가 배경이 된 이 소설은 제주 4·3 사건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소설에서 30년 전 제주도에서의 集團虐殺 사실이 暴露되고, 實相이 생생하게 재현됨으로써 오래된 禁忌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또한 제주 4·3 사건에 대해 제 3자였던 외부인들의 진지한 시선이 조금씩 형성되기 시작했다.⁴⁸⁾

이후 제주 4·3 사건은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다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제주

45)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p.36.

46) 박찬식, 「4·3연구 추이와 전망」, 『제주작가』 제2호, 제주작가회의, 1999, p.29.

47) 김동윤, 「4·3문학의 전개양상과 그 의미」, 『기억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역사비평사, 2004, pp. 210~211.

48) 김영범, 「기억투쟁으로서의 4·3문화운동 서설」, 『기억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역사비평사, 2004, p. 36.

4·3 연구소의 『이제사 말함수다(1,2권)』(한울, 1988, 1989)와 개인적으로 제주 4·3 사건의 피해자들과 對面하여 구술 자료를 採錄한 오성찬의 『한라의 통곡소리 -4·3제주대학살의 증언』(소나무, 1989)은 제주 4·3 사건에 대한 증언의 觸媒劑가 되었다.

濟州語를 그대로 살린 『이제사 말함수다』는 당시 시대적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은 가운데 행해진 작업이었던 탓에 증언자들의 대부분이 實名이 아닌 匿名을 사용해야 했던 한계가 있었으나 구술사의 사례로서는 先驅的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제주 4·3 사건에 관한 증언운동에 새로운 시발점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증언운동은 제민일보 4·3취재반의 연재물 ‘4·3은 말한다’에서 많은 정리가 되었다.⁴⁹⁾ 취재반은 제주도 내의 모든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제주 4·3 사건의 체험자들을 직접 인터뷰하여 6천여 명에 이르는 증언자를 확보하였다. 이렇게 수집한 증언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단행본인 『4·3은 말한다』(전예원, 1994~1998)가 5권까지 출간되었는데 구술 자료와 문헌 자료를 網羅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와 영향을 갖게 되었다.

1990년대 정치적 상황의 변화와 함께 眞相糾明에 대한 논의가 새로이 제기되었다. 마을별 현지조사가 시작되었고 이에 따라 증언운동은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다. 증언을 토대로 제주 4·3 제 50주년 학술·문화 사업 추진위원회가 펴낸 『4·3유적지 기행-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학민사, 1998), 제주 4·3 연구소 현장 채록탐이 記述한 『한림면 현장 조사서』와 같은 것들이 그러한 文獻들이다. 기존 제주 4·3 사건의 연구에서 이루어졌던 마을별 현지 조사는 眞相糾明에 목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의 증언을 서로 비교하며 진실성을 묻고 확인하는 데 집중하였다. 제주 4·3 연구소의 『4·3연구회보』(1989)에서 시작된 『4·3장정』(1990~1993)과 『4·3과 역사』(2001~2005) 등에서도 진실을 알리기 위한 증언들이 등장하고 있다.⁵⁰⁾

49) 이 연재물은 1988년 3월부터 제주신문 4·3특별취재반이 구성되어 1년간의 취재 끝에 1989년 4월 3일부터 ‘4·3의 증언’으로 연재되다가 일시 중단, 다시 1990년 6월부터 새로 창간된 제민일보에서 『4·3은 말한다』로 이어졌다.

50) 김동진, 「제주지방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지방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연구회편, 2000, p.222.

2000년대 들어서 구술 자료에 대한 연구는 더욱 더 세분화된 형태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제주 4·3연구소의 『무덤에서 살아나온 4·3 수형자들』(역사비평사, 2002)도 제주 4·3 사건 생존자들의 증언을 통해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민간인들의 인권문제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1999년 12월 16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2000년 1월 12일 ‘제주4·3특별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제주 4·3 사건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이후의 증언 사례들이 정리된 커다란 성과로는 2003년 사건발생 55년 만에 정부 차원에서 발간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들 수 있다. 이 보고서는 4·3특별법의 취지대로 과거 人權蹂躪의 實態를 모두 드러내었고 眞實糾明의 결실이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⁵¹⁾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그 동안 수집된 증언채록자료는 571개 건으로 많은 구술 자료의 수집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⁵²⁾ 하지만 제주 4·3 사건이 발생한 지 6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조차 밝혀지지 않은 많은 이야기가 있다. 더군다나 사건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실종된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는 영원히 담지 못하는 자료로 사라져 버렸다. 더구나 사건의 발생 후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은 제주 4·3 사건의 기억을 되찾기가 점점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음을 뜻한다. 구술 자료를 수집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1) 2000년 1월 12일 제정 공포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의해 정부차원의 진상규명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두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을 하였으며, 위원회 산하에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관련자료를 국내외에서 수집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03년 3월 29일에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앞의 책, p.35~39.

52)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의 책, p.46. 분호상항 표 참조.

Ⅲ. 교과서의 제주 4.3사건 서술 분석

1. 국정 교과서 및 검·인정 교과서 분석

현재 고등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역사 교과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필수과목으로 배우는 『국사』 교과서⁵³⁾이며, 다른 하나는 2학년으로 진학하면서 학생들이 선택하여 배울 수 있는 『근·현대사』 교과서이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국사』 교과서에서는 한반도에서 인류가 生存하며 문명을 발생시킨 선사 시대부터 시작해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를 정치·경제·사회·문화라는 대분류를 통해 시간의 순서대로 폭넓게 다루고 있다. 이러한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국사』 교과서의 특성상 역사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을 深度 있게 다루기보다는 각 사건을 나열하고 약간의 설명만을 포함하는 限界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 나열적 설명은 한 권의 교과서에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담아야 하는 분량의 限界뿐만 아니라 『국사』 교과서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시간적 制限이 커다란 이유로 작용한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학생들은 ‘선택 과목’을 선택하게 된다. ‘선택 과목’은 한국 근·현대사, 사회문화, 법과 사회, 윤리, 한국지리, 경제, 정치, 세계사 등 다양하게 나누어진다. 학생들은 목표로 선택한 대학이나 학생 스스로의 학습 취향이나 성취도에 따라 ‘선택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렇게 선택되는 과목 중 하나가 바로 『근·현대사』⁵⁴⁾이다. 『근·현대사』 교과서는 檢·認定 교과서로서 각 학교의 학교장 자율권에 따라 출판사를 선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마다 각기 다른

53) 『국사』 교과서는 국정 교과서로서 국사 편찬 위원회와 국정 도서 편찬 위원회가 집필해 교육 인적 자원부에서 배포하고 있다.

54) 『근·현대사』 교과서는 검·인정 교과서로서 ‘교육 인적 자원부’의 승인을 얻어 교재로서의 자격을 갖는다. 그러므로 『근·현대사』 교과서의 경우 여러 출판사에서 검·인정을 얻어 학교에서 수업 교재로 활용되고 있는데 같은 주제나 사건을 서술함에 있어서 그 내용의 서술 방식과 분량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로 역사수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교과서의 서술 내용이 각 출판사마다 다를 경우 학생들은 역사 학습에서 공정한 학습 기회를 갖지 못함과 동시에 偏向된 역사 지식을 갖게 될 우려가 있다.

지금부터 살펴보게 될 교과서들은 실제 학교 수업에서 활용되는 國定, 檢·認定 교과서와 國定, 檢·認定 교과서의 문제점 혹은 서술의 미흡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代案으로 만들어진 대안교과서이다. 각 교과서 속에 서술되어 있는 제주 4·3 사건의 내용을 확인하고 비교해 보도록 할 것이다.

각 교과서를 분석함에 있어서 제주 4·3 사건이 많은 희생자와 피해를 발생시킨 사건이었으며 현재까지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기준을 정하였다. 어떠한 단원에 포함되어 서술되고 있는지, 혹은 어떠한 제목으로 제주 4·3 사건이 다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단원적 분석과 교과서 안에서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그에 따른 내용이 얼마나 포함되고 있는지에 대한 서술 분량적 측면, 그리고 그 서술 내용이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있는지에 대한 서술의 질적 측면을 분석 기준으로 삼는다. 서술의 질적 측면은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배경, 전개과정 그리고 사건이 갖는 의미 등을 포함한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역사 수업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국사』 교과서와 2·3학년 학생들의 수업 교재인 『근·현대사』 검·인정 교과서를 각 출판사별⁵⁵⁾로 나누어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1) 단원적 분석

단원적 분석은 제주 4·3 사건이 교과서에서 독립된 하나의 단원으로서의 비중을 갖는지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을 통하여 제주 4·3 사건이 국사, 근·현대사 교과서에서 어떠한 단원명에 포함이 되는지 혹은 개별적인 제목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얼마만큼의 중요성을 갖는 사건으로 認識되는지를 살펴본다.

다음은 제주 4·3 사건이 포함된 교과서 내의 단원명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55) 금성출판사, 두산출판사, 법문사, 대한교과서, 천재교육

<표-1> 제주 4·3 사건을 포함하고 있는 단원명

	중단원명	소단원명	각주형식의 설명
국사	대한민국의 성립과 발전	대한민국의 수립	제주도 4·3 사건
금성출판사	대한민국의 수립과 분단	단독 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	제주 4·3 연구소 (http://www.cheju43.org)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 (http://www.jeju43.go.kr)
두산	6·25 전쟁	제주도 4·3 사건	서북청년단 제주도 4·3 사건의 피해
대한교과서	냉전의 현실 속에 통일 국가의 꿈은 깨어지고	제주도 4·3 사건과 여수·순천 10·19 사건	
법문사	6·25 전쟁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후의 국내 정세	
천재교육	-	-	-

위의 <표-1>을 살펴보면 우선 국사교과서의 경우 교과서 본문에 제주 4·3 사건이 서술되어 있지 않고 別添으로 표시된 단어설명란에 ‘제주도 4·3 사건’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금성출판사의 경우에는 소단원인 ‘단독 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 안에 제주 4·3 사건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였다. 추가적으로 설명란에 ‘제주 4·3 연구소’와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표기했으며 추가적으로 ‘문학속으로’라는 추가설명란을 통해 제주 4·3 사건을 다룬 현

기영의 <순이 삼촌>의 일부와 설명을 기술하였다.

두산출판사의 경우에는 소단원 제목으로 ‘제주도 4·3 사건’을 표시하고 그 내용을 서술하였다. 또한 단어설명란에 ‘서북청년단’과 ‘제주도 4·3 사건의 피해’를 記載하였다.

대한교과서는 소단원 제목으로 ‘제주도 4·3 사건과 여수·순천 10·19 사건’을 사용하였다. 본문의 내용 뿐만 아니라 ‘탐구활동’, ‘열린과제’를 통해 제주 4·3 사건을 다루었다.

법문사에서 나온 근·현대사 교과서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후의 국내 정세’라는 소단원 안에 제주 4·3 사건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교과서에서 단원의 명칭은 이후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의 중요성을 그대로 반영하며, 학습하는 학생들이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정 사건을 하나의 단원명으로 선정하는 것은 그 사건이 교과서 내에서 얼마만큼의 중요성을 갖는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배우는 학생들에게도 사건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하는데 효율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제주 4·3 사건을 하나의 소단원 이상의 주제로 선정한 출판사는 두산과 대한교과서 뿐이다. 금성출판사의 경우 ‘단독 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이라는 소단원의 주제에서 제주 4·3 사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하지만 타 출판사의 경우에는 제주 4·3 사건을 단원명으로 표시하지 않고 脚註 형식의 짧은 설명에 그치거나 아예 표기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각기 다른 교과서를 통해 역사를 학습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제주 4·3 사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돕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서술의 분량적 분석

서술 분량적 분석에서는 교과서 안에서 제주 4·3 사건을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본문에서 제주 4·3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을 記述하는 것 이외에 얼마나 다양한 방법과 소재를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분량적 측면을 살펴보는 것은 제한된 교과서의 분량 안에서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이해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가에 대한 분석이 된다.

우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국사』 교과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추가적 설명>

제주 4.3 사건(1948)

제주도에서 벌어진 단독 선거 반대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만 명의 인명 피해가 일어난 사건⁵⁶⁾

『국사』 교과서의 경우 사건에 대한 간략한 概要만을 본문의 내용과는 별도로 분리시켜 개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본문 안에서는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없으며, 脚註의 형태로 부연설명만 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사』 교과서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사건은 그 발생 사실과 사실에 대한 간략적인 설명만이 서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근·현대사』 교과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 내의 서술은 다음과 같다.

<본문>

단독 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해 가장 격렬한 반대 투쟁이 일어난 곳은 제주도였다. 1948년 4월 3일 단독 정부 수립 반대와 미군의 즉시 철수 등을 주장하는 제주도의 공산주의자와 일부 주민들은 무장 봉기하여, 도내의 관공서와 경찰지서를 습격하였다(4.3사건). 이들은 무장 유격대를 조직하고, 한라산을 근거지로 하여 경찰 및 군인들과 전투를 계속하였다. 그 결과 제주도의 3개 선거구 중 두 곳에서는 총선거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들 지역의 선거는 1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시행될 수 있었다.

미 군정과 새로 들어선 정부는 군인과 경찰, 우익 청년 단체들을 동원하여 유격대를 진압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만 명의 제주도민들이 함께 희생되었다.⁵⁷⁾

<추가적 설명>

56) 국사편찬위원회, 『고등학교 국사』, 교학사, 2002, p.124.

57) 김태웅 외 5인,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2003, pp.262~267.

제주 4·3 사건을 다룬 현기영의 《순이 삼촌》

나는 할아버지의 제삿날에 맞추어 8년 만에 고향 제주도 서촌 마을에 내려간다. 거기에서 나는 순이 삼촌이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순이 삼촌은 30년 전인 1948년 제주 4·3 사건 당시 학살 현장에서 두 아이를 잃고 구사일생으로 살아 남았지만, 그 때의 충격을 가슴에 안고 살다가 끝내 죽음을 택한 것이었다.

‘그렇다. 그 죽음은 한 달 전의 죽음이 아니라 이미 30년 전의 해묵은 죽음이었다. 당신은 그 때에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는 나의 독백은 순이 삼촌뿐 아니라, 당시 가족이나 친지의 억울한 죽음을 지켜보았으면서도 수십 년간을 말 한 마디 못한 채 살아온 수많은 제주도민의 마음이기도 하다.

1948년 12월 북제주군 조천면 북촌리에서 벌어진 양민 학살 사건을 주제로 삼고 있는 현기영의 《순이 삼촌》은 30년 동안이나 묻혀 있던 제주 4·3 사건을 처음으로 사회에 드러낸 문제작으로 손꼽힌다. 이 소설로 사람들은 비로소 한국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인 제주 4·3 사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로부터 21년이 지난 1999년 12월 16일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당시 희생된 제주도민의 명예는 공식적으로 회복되었다. 그러나 제주 4·3 사건 당시 일어났던 많은 일들에 대한 진상은 아직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⁵⁸⁾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는 본문에 제주 4·3 사건의 원인과 전개 과정, 그리고 사건으로 인한 결과 등을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그리고 본문 이외의 내용으로 <문학속으로>가 교과서 하단에 추가로 서술하였다. <문학속으로>에서는 1978년에 소설로 등장해 제주 4·3 사건을 사회의 커다란 관심을 받게 한 현기영의 『순이 삼촌』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본문에 사건의 간략한 사실을 서술하고 이외의 내용으로 문학작품을 활용한 것은 학생들에게 역사사실 뿐만 아니라 역사 사건과 시대상을 반영하는 문학소설을 통해 사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순이 삼촌』이 문학작품으로서 제주 4·3 사건의 사실과 虛構의 경계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이러한 접근을 통해 사건에 대한 호기심을 증폭시

58) 위의 책 p.262.

킬 수 있으며,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는契機를 마련하게 된다. 이 뿐만 아니라 교과서 내에 인터넷 사이트⁵⁹⁾를 표시해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과 관련된 추가적인 자료를 찾기 쉽도록 돕고 있다.

두산교과서의 『근·현대사』 교과서 내의 서술은 다음과 같다.

<본문>

제주도 4·3 사건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전후하여 대규모의 유혈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였다. 제주도에서는 1948년 4월 3일에 좌익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도민들이 경찰 지서를 습격하는 무장 폭동을 일으켰다. 이들은 미군 철수, 단독 선거 절대 반대, 경찰과 테러 집단 철수 등을 주장하였다.

제주도 4·3 사건의 배경에는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좌익 세력의 활동, 군정 경찰과 서북 청년단에 대한 반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1947년 3·1절 기념 시위가 벌어졌을 때 군정 경찰의 발포로 희생자가 발생하자 제주도민들은 이에 항의하여 파업을 단행하였다. 이에 대해 미 군정 당국이 군정 경찰과 서북 청년단을 추가로 파견함으로써 제주도민과 군정 경찰 및 서북 청년단 사이에는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었다.

미 군정은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대규모의 군대, 경찰, 청년단을 증파하였다. 여기에 맞선 주민들은 한라산으로 들어가 인민 유격대를 조직하고 대항하였다. 이에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는 5·10 총선거가 실시되지 못하고 연기되었다. 특별 작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대규모의 유혈 사태가 빚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도 많이 희생되었다.⁶⁰⁾

<추가적 설명>

관련 자료 찾기

제주도 4·3 사건 : <http://www.jeu43.org>

서북 청년단 : 1946년 11월에 서울에서 조직된 반공 단체로, 월남한 청년들로 구성되어 반공 운동에 앞장섰다.

제주도 4·3 사건의 피해 : 1949년 6월까지 계속된 진압 과정에서 약 2만~3만 명의 제주도민들이 희생되었다고 한다.

59) 제주 4·3 연구소 <http://www.cheju43.org> ;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위원회 <http://www.jeu43.go.kr>

60) 김광남 외 4인, 『한국 근·현대사』, 두산, 2003, p.273.

두산교과서에서는 제주 4·3 사건을 중단원인 〈6·25 전쟁〉의 소단원으로 채택해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다. 본문 안에는 제주 4·3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전개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된 〈관련 자료 찾기〉를 통해 제주 4·3 연구소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http://www.jeju43.org>)를 표기하고 있다. 관련된 기관의 홈페이지를 표시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이 사건에 대한 추가적 지식의 습득을 용이하게 돕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추가 설명으로 서북 청년단과 제주도 4·3 사건의 피해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하고 있다. 하단에는 ‘제주 4·3 사건으로 체포된 사람들’이라는 설명이 달려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더욱 풍부하게 나타내고 있다.⁶¹⁾ 두산교과서에 서술된 제주 4·3 사건에 대한 내용은 본문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건의 원인과 그 전개 과정, 결과 등이 서술되어 있으며, 脚註의 형식을 취하여 사건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단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사건의 내용과 함께 관련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된다.

대한교과서의 『근·현대사』 교과서 내의 서술은 다음과 같다.

<본문>

3-3 제주도 4·3 사건과 여수·순천 10·19 사건

광복 후에 대다수 국민은 통일 국가 수립을 바랐으나, 냉전 체제가 굳어지면서 그 꿈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세력과 군·경이 충돌하는 유혈 사태가 남한 각지에서 일어났다. 그 과정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제주도 4·3 사건과 여수·순천 10·19 사건이었다.

1947년, 제주도에서 3·1절 기념식을 마치고 시가 행진을 하던 군중에게 경찰이 발포하여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주민들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을 벌이며 항의하였다. 그런데 군정 당국은 민심을 수습하기보다 무력으로 탄압하였다. 특히, 공산주의자들을 소탕한다는 명분 아래 수천 명의 일반 주민들까지 투옥함으로써 주민들의 반감을 샀다. 이 사건은 1948년에 제주도 4·3 사건이 일어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61) 교과서에 나타나 있는 사진 자료들은 학생들이 학습하는 주제에 대하여 관심을 유발하며, 서술된 표현으로 느낄 수 없는 현장성을 갖는다는 장점이 있다.

<추가적 설명>

-탐구활동-

제주도 4·3 사건과 여수·순천 10·19 사건은 왜 일어났는가?

자료1 - 도움글 : 좌익 세력의 무장 봉기

5·10 총선거를 둘러싸고 좌·우 세력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1948년 4월 3일 500명 가량의 좌익 세력은 단독 선거 저지를 통한 통일 국가 수립, 그리고 경찰과 극우 세력의 탄압에 저항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경찰 지서와 서북 청년회 등의 우익 단체들을 습격하였다. 이로써 제주도에서는 총선거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였다.

자료2 - 자료읽기 : 제주도에 공무원들의 부패가 극심하다.

제주도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것은 시정 방침에 신축성이 없다는 것과 공무원들이 부패하였다는 것 등을 들 수 있겠다. 제주도라는 곳은 워낙 살기 어려운 곳이고, 특히 공무원들은 제주도에 가는 것을 무슨 정배나 가는 양으로 생각함으로써 인재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제주도로 안 가고 보니, 명예나 돈이나 바라는 친구들이 어찌 바른 행정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부패상은 작년에 내가 갔을 때 이미 역력히 드러나고 있었다. 예를 들면 고름이 제대로 든 것을 좌익 계열에서 바늘로 터뜨린 것이 제주도 사태의 진상이라 할 것이다.

-이인 검찰 총장(서울 신문, 1948년 6월 17일)-

-열린과제-

1. 자료 1·3을 참고하여 좌익 세력이 제주도 4·3 사건과 여수·순천 10·19 사건을 일으킨 까닭을 설명해 보자.
2. 자료 2는 제주도 4·3 사건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고 있는지 설명해 보자.
3. 다음 글을 읽고 제주도 4·3 사건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유를 조사하여 보고서로 작성해 보자. 관련 자료는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 홈페이지 (www.jeju43.go.kr)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위의 탐구 활동에서 보듯이, 제주도에서 일어난 무장 봉기를 주도한 것은 수백 명밖에 안 되는 좌익 세력이었다. 그런데 국군과 경찰은 이들을 진압하면서 산간 마을을 모두 불태우는 초토화 작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무고한 수많은 주민이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은 1954년에 끝이 났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

다.⁶²⁾

대한교과서에서는 타 교과서에 비하여 제주 4·3사건을 가장 많은 분량을 통해 서술하고 있다. 타 교과서와는 다르게 중단원의 제목을 ‘제주도 4·3 사건과 여수·순천 10·19 사건’으로 표시하고 있다. 또한 본문의 내용은 제주 4·3 사건의 발생 배경과 원인, 전개 과정과 사건이 남긴 傷痕에 대하여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제시된 ‘탐구활동’의 자료에서는 사건의 모든 내용이 아닌 사건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 원인에 대하여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다. 자료 1을 통해서는 당시 시대적 문제였던 이데올로기로 인한 충돌을 서술하였으며, 자료 2를 통해서는 당시 제주도의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기술하여 제주도 내의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탐구 활동’을 통해서도 “제주도 4·3 사건과 여수·순천 10·19 사건은 왜 일어났는가?” 라는 제목의 질문을 통해 발생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중요한 話頭로 던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열린과제’라는 추가 구성을 통해 제주도 4·3 사건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사건 발생의 배경과 원인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또한 제주도 4·3 사건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유에 대한 질문을 통해 당시의 사건에서 제주도민이 커다란 피해를 입었으며 동시에 무고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삽화자료를 첨부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문사의 『근·현대사』 교과서 내의 서술은 다음과 같다.

<본문>

이러한 가운데 1948년 4월 3일에 제주도의 좌익 세력들이 미군 철수, 단독 선거 반대 등을 주장하며, 도내의 경찰 지서와 우익 단체를 공격하였다(제주도 4·3 사건). 미 군정청은 이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군대와 경찰을 파견하였는데, 진압 과정에서 많은 무고한 주민이 희생되었다. 이에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는 5·10 총선거가 실시되지 못하고 연기되었다.⁶³⁾

62) 한철호 외 5인, 『한국 근·현대사』, 대한교과서, 2003, p.256~257.

63) 김종수 외 3인, 『한국 근·현대사』, 법문사, 2004, p.256.

법문사의 경우 ‘대한 민국 정부 수립 전후의 국내 정세’라는 소단원에 제주도 4·3 사건을 함께 다루고 있다. 하지만 타 교과서에서 다루었던 제주도 4·3 사건의 원인이나 추가적인 敷衍 설명 등은 기술되지 않고 본문 안에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의 나열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 사건이 단순한 左翼과 右翼의 대립으로 인한 사건으로 이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檢·認定 교과서인 천재교육의 『근·현대사』 교과서에서는 제주도 4·3 사건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찾아볼 수 없었다.

위의 교과서 서술 분량에 관한 분석을 간략하게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2> 교과서 속에 나타난 제주 4·3 사건의 서술 분량

	원인에 대한 추가 설명	단체·용어에 대한 추가 설명	자율적 학습에 필요한 자료 설명	사진·삽화
국사	-	제주 4·3 사건	-	-
금성출판사	-	-	-소설을 활용하여 사건의 이해를 돕고 있음 -제주 4·3 연구소 http://www.cheju43.org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위원회 http://www.jeu43.go.kr	-
두산	-	서북청년단, 사건의 피해 현황	http://www.jeu43.org	제주 4·3 사건으로 체포된 사람들

대한교과서	-탐구활동 자료 1, 자료 2 (당시 이인 검찰 총장의 글)	4·3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제주 4·3 사건의 정의	http://www.jeju43.go.kr	한라산 정상 부근의 산림 지대를 수색하는 국군
법문사	-	-	-	-
천재교육	-	-	-	-

지금까지 현재 고등학교에서 채택하여 사용되고 있는 『근·현대사』 교과서의 내용들을 서술의 분량적 측면에서 비교해 보았다. 위의 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국사 교과서에서는 본문의 내용으로 사건을 다루지 않고 脚註 형식의 설명에서 제주 4·3 사건을 간략하게 다루고 있었다. 나머지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본문의 내용으로 사건을 다루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두산과 대한교과서의 근·현대사 교과서만이 추가적인 자료를 표시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있었다. 금성출판사의 경우에는 문학작품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사건에 대한 호기심과 이해를 돕고 있었으나 사건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된 자료들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대한교과서는 교과서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으로 다양한 이해를 돕고 있었다. 교과서 내에서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두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와 설명이 있었다. 사건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당시 신문에 掲載되었던 검찰 총장의 글을 자료로 활용했으며, 1999년 국회를 통과한 4·3 특별법의 내용과 사건의 정의를 引用하였다. 학생들이 의문점에 대하여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제주 4·3 사건과 관련된 홈페이지를 收錄하였으며, 사진 자료를 첨부하여 당시의 모습을 더욱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이러한 서술 분량은 학생들로 하여금 제주 4·3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한 교과서와 두산을 제외한 타 교과서의 경우에는 사실상 교과서만으로 학습이 이루어질 경우 제주 4·3 사건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학습하는데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법문사에서는 국사 교과서와 비슷한 분량과 설명이 본문으로 표시되어 사건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부족함을 보였으며, 심지어 천재교육의 교과서 내에서는 사건의 발생조차 나타나있지 않아 사건을 이해하는데 커다란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교과서 내에서 ‘제주 4·3 사건’이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다뤄졌느냐는 학생들에게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한다. 단순히 본문 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사건의 概要만을 서술하여 설명에 그치는 설명식 역사 수업은 결국 학생들에게 단순하게 나열된 사실들을 습득하도록 강요하는 역할에 머무르게 되며, 이러한 수업 형태는 결국 학생들에게 수동적인 학습 태도를 갖게 한다.⁶⁴⁾ 교과서 내에서 제주 4·3 사건에 대한 서술 분량이 적어 학생들이 사건의 심각성과 중요성에 대하여 認知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부족하게 서술된 제주 4·3 사건에 대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교사는 여러 방법과 자료를 통하여 수업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자료의 활용과 수업 방법의 전환에 따라 교과서 내에 서술되어 있는 ‘제주 4·3 사건’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단순한 한 가지 사건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사건의 문제를 인식하고 탐구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것이다.

3) 서술의 질적 측면 분석

여기서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제주 4·3 사건’의 因果關係가 교과서 내에서 어떠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볼 것이다. 사실 서술의 질적 측면은 앞에서 언급된 ‘서술의 분량적 측면’과 관계가 있다. 질적 측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와 설명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각 교과서가 ‘제주 4·3 사건’의 발생 배경, 원인, 전개과정, 사건이 갖는 의미를 잘 서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간단히 표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3> 교과서 속에 나타난 제주 4·3 사건의 개요

	발단배경	원인	전개과정	결과와 의미
국사	좌·우익의 대립 격화를 발단 배경으로 설명	-	-	-

64) 양호환 외, 『역사교육의 이론과 방법』, 삼지원, 1997, p.40.

금성출판사	단독 정부 수립 반대와 미군 철수를 주장	공산주의자와 일부 주민이 관공서와 경찰서를 습격	무장 유격대를 조직, 군·경찰과 전투	제주도 3개의 선거구 중 두 곳에서 총선거 취소
두산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한 좌익세력의 활동, 군정 경찰과 서북 청년단에 대한 반감이 복합적으로 작용, 3·1절 기념 시위에서의 경찰 발포에 대한 총파업	좌익세력이 중심이 되어 경찰 지서를 무장 습격	미 군정의 대규모 진압부대 파견, 주민들이 한라산에서 유격대를 조직, 대항	일부 지역에서 5·10 총선거 취소, 대규모 유혈 사태로 인해 무고한 양민의 많은 희생
대한교과서	3·1절 기념식 후 경찰의 발포, 주민들의 총파업, 민심 수습이 아닌 강경한 무력 탄압으로 수천 명의 일반 주민들을 투옥함	500여 명의 좌익세력이 경찰 지서와 서북 청년회 등의 우익 단체를 습격	수백 명 정도의 좌익 세력을 토벌하기 위한 초토화 작전 진행	많은 무고한 주민들의 희생, 현재까지 이어지는 제주 주민들의 아픔
법문당		좌익 세력들이 제주도내의 경찰 지서와 우익 단체를 공격	군대와 경찰의 파견, 진압	무고한 많은 주민의 희생, 5·10 총선거의 연기, 국군과 경찰에 쫓긴 좌익 세력의 투쟁으로 인해 혼란을 가중
천재교육	-	-	-	-

위의 표를 살펴보면 ‘제주 4·3 사건’을 가장 체계적으로 서술한 교과서는 두산과 대한교과서이다. 두 교과서에서는 사건의 발생 배경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 당시 제주도의 사회적 분위기를 설명하고 있으며 결정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다. 대한교과서의 경우 타 교과서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은 軍政 당국의 強硬 鎮壓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당시 『서울신문』에 掲載되었던 이인 검찰 총장의 글을 교과서 내에 記述하여 ‘제주 4·3 사건’이 벌어질 수 밖에 없었던 원인들을 잘 나타내고 있다.

사건의 전개 과정은 교과서 대부분이 간략적인 사건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제주 4·3 사건’에서 많은 무고한 피해를 발생시킨 軍과 서북 청년회 등의 ‘토벌대’에 의한 ‘소탕 작전’이나 ‘초토화 작전’과 같은 사건에 대해 언급한 교과서는 대한교과서와 두산이 유일하였다.

‘제주 4·3 사건’이 남긴 결과나 그 영향에 대해서는 금성출판사와 두산, 대한교과서, 법문당 모두 무고하게 희생된 양민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하지만 교과서 내의 서술 관점에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법문사의 경우에는 타 교과서에서 당시 미 군정하의 군과 경찰을 ‘미 군정’, 혹은 ‘군정’, ‘군’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반하여 ‘국군’으로 표시하고 있었으며 左翼세력의 투쟁으로 인하여 더욱 혼란을 加重시켰다고 서술하고 있다.

교과서 내의 서술을 살펴 본 결과 각 교과서들이 담고 있는 ‘제주 4·3 사건’의 질적 측면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천재교육의 근·현대사 교과서의 경우에는 ‘제주 4·3 사건’ 자체가 漏落되어 있어서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교과서들 중에서 학생들이 ‘제주 4·3 사건’을 학습하는데 있어서 사건의 원인과 전개 과정 및 결과에 가장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교과서는 대한교과서로 보인다.

2. 대안교과서 분석

지금까지 國定 교과서인 『국사』 교과서와 檢·認定 『근·현대사』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전부터 학습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근·현대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일부 현역 교사들이, 혹은 대학 교수진들이 執筆한 <대안교과서>의 경우에는 제주 4·3 사건이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 간략히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우선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65)의 내용을 살펴보면

4·3 항쟁(1948)

남한만의 총선거 결정에 대하여 사회주의 세력은 반대하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강력한 저항에 나서기도 하였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격렬한 반대 시위가 전개되었다. 제주도민의 저항과 군·경찰의 토벌 작전은 1년여를 끌었다. 이 과정에서 수만 명의 제주도민이 희생되었다.

<한 민족, 두 국가>라는 중단원 속에 각주의 형식으로 제주 4·3 사건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 이외에는 제주 4·3 사건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또 다른 대안교과서인 『아틀라스 한국사』 66)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략>

단독 정부 수립이 추진되자 남한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운동이 거세졌다.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는 단독 정부 수립 반대와 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무장 봉기가 일어났다. 이들은 무장 유격대를 조직하고 한라산을 근거지로 하여 경찰 및 군인, 우익 청년 단체들과 맞섰다. 무장 유격대를 진압한다는 명분 아래 수많은 제주도민이 학살되었다.

<남북 정부 수립과 분단 고착화>라는 중단원 속에 내용을 기술하였는데, 타 檢·認定 교과서나 대안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는 지도⁶⁷⁾를 添附하여 제주 4·3 사건의 전

65)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는 ‘전국역사교사모임’이 집필하여 발간한 대안교과서로 제 1권-‘민족의 형성과 민족 문화’와 제 2권-‘20세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로 총 2권이 발간되어 있다.

66) 『아틀라스 한국사』는 ‘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진’이 집필하여 발간한 대안교과서이다. 이 대안교과서는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역사교과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시간적 측면보다는 공간적 측면에 그 중점을 두고 다양한 지도를 첨삭하여 역사적 사건의 발생과 그 사건이 전개되어 가는 과정을 지도로 설명해 독자의 지리적 이해를 돕고 있다. 『아틀라스 한국사』와 『아틀라스 세계사』로 총 2권이 발간되어 있다.

개 과정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였다.

‘교과서 포럼’에서 집필한 또 다른 대안교과서인 『한국 근·현대사』 68)의 내용을 살펴보면

좌파세력의 반란

남조선노동당(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좌파 정치 세력은 대한민국의 성립에 저항하였다. 남로당은 정부 수립 이전인 1948년 4월 3일에 제주도에서 무장반란을 일으켰다(제주 4·3사건). 이 반란은 8월 정부 수립 이후까지도 이어졌다.

제주 4·3사건

해방 후의 혼란을 틈타 남로당은 제주도에 지하조직을 구축하고 제주인민해방군까지 조직하였다. 그들은 전쟁 말기 일본군이 풍부하게 비축한 무기와 화약으로 무장하고 유격전 훈련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북 출신의 경찰관들이 제주도에 파견되어 제주도민에게 폭력을 남용하였다. 이를 계기로 제주도 남로당 세력은 1948년 4월 3일 남한만의 단독선거 반대, 반미·반경찰·반서북청년단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민중봉기를 주도하고 유격전을 펼쳤다. 사태가 악화되자 미군정청은 군대를 제주도에 투입했는데, 군은 유격대가 은신한 제주도 산간지대를 대상으로 가혹한 진압작전을 펼쳤다. 그 과정에서 약 9만 명의 이재민과 대량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1949년 5월에 일단 종결되었으나, 봉기의 여세는 6·25 전쟁을 거쳐 1954년에야 완전히 진압되었다.

이 대안교과서에서는 제주 4·3 사건을 ‘좌파세력의 반란’이라는 중단원 제목으로 다루고 있다. 타 檢·認定 교과서나 대안교과서에서 다루었던 제주 4·3 사건의 發端에 대한言及은 없었으며, 사건의 발생과 원인이 이미 준비되어진 것처럼 여기도록 서술하고 있다.

67) 지도에는 제주 4·3 사건의 시발점이 된 1947년 3월 1일 관덕정에서의 3·1절 기념식 군중에게 경찰이 발포한 내용을 포함하여 ‘4월 3일 시위대에 습격당한 지서’, ‘초기 무장 시위대 주둔지’, ‘후기 유격대 주둔지’, ‘유격대 및 민간인 학살 지역’, ‘진압군 주둔지’, ‘주민 피난처’, ‘주요 사건 발생지’, ‘현재 주요 지명’ 등을 자세히 표시하고 있다. 이로써 제주 4·3 사건의 양상이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를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돕고 있다.

68) 『한국 근·현대사』는 역사를 다루는 대안교과서임에도 불구하고 집필진을 살펴보면 역사학자나 역사학 교수, 심지어 일선 현장에서 활동하는 역사교사의 이름도 찾아볼 수 없다. 집필진 12명은 경제학과 교수,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영학과 교수, 국제관계학과 교수, 환경대학원 교수, 윤리교육과 교수 등으로서 역사학을 전공으로 두거나 역사 교육에 종사하는 집필진은 한 명도 없었다.

또 다른 대안교과서인 『미래를 여는 역사』⁶⁹⁾에는 제주 4·3 사건에 대한 어떠한 서술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대안교과서에 나타난 제주 4·3 사건은 각 교과서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사건이 서술되고 있다.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는 그 내용은 간략하지만 사건의 원인과 과정, 결과 등이 잘 나타나 있었으며, 『아틀라스 한국사』의 경우에는 지도 중심의 역사 교과서라는 특징을 살려 사건의 지리적 내용이 주로 이루어졌다. ‘교과서 포럼’의 대안교과서인 『한국 근·현대사』에서 제주 4·3 사건은 ‘반란’, ‘진압’이라는 표현 등이 등장해 ‘교과서 포럼’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한·중·일 3국의 학자들이 공동 執筆한 『미래를 여는 역사』는 국내의 사건보다는 국외적 사건, 혹은 3국이 서로 觀點이 對立하거나 맞닿아 있는 내용이 주로 이루어졌다. 대안교과서라는 특성상 집필진의 성향이 많이 반영되어 한 권의 대안교과서로 제주 4·3 사건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지금까지 실제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수업에 사용되는 檢·認定 근·현대사 교과서와 교과서의 사실 나열적 서술과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며 만들어진 대안교과서를 살펴보았다. 檢·認定 교과서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교과서는 제주 4·3 사건을 다루는 내용과 그 분량이 크게 차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금성출판사, 두산교과서, 대한교과서에서 출판한 근·현대사 교과서의 경우에는 제주 4·3 사건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거나 학습할 수 있는 약간의 자료를 掲載한 반면 법문사의 근·현대사 교과서에는 간단한 사건의 발생과 같은 사실 나열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분석 대상이었던 대안교과서는 기존 檢·認定 교과서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만큼 각 대안교과서마다 제주 4·3 사건의 서술 방식이나 내용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의 경우에는 檢·認定 교과서와 그 내용이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단순한 사실을 나열함으로써 다양한 자료를 제

69) 『미래를 여는 역사』는 저술하는 당시부터 화제를 모았다. 한국·중국·일본 3국의 학자·교사·시민 활동가들이 집필진이 되어 서로 교류하며 근·현대사에서 각국이 충돌하는 역사인식을 하나로 모아 대안교과서로 제작하였다. 제작과 동시에 각국에 동시에 발간되었는데 주된 내용은 근·현대 동아시아의 정세와 일본의 침략전쟁에 따른 식민시대에 대한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데 있었다. 또한 삼국의 자료와 사진들을 모아 다른 검·인정 교과서나 대안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정 사건이나 같은 주제를 한·중·일 세 국가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 커다란 특징이다.

공하고 있는 일부 檢·認定 교과서보다 내용이 불충분하였다. 또 다른 대안교과서인 『아틀라스 한국사』는 타 검·인정 교과서나 대안교과서와는 차별화된 서술을 보였다. 서술적인 부분에서는 상세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지도에 제주 4·3 사건 양상을 표시함으로써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사건 전개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도왔다.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경우에는 다른 교과서와는 아주 다른 서술 형태를 보였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대안교과서이긴 하나 교과서 서술에 대한 전문성不在와 정치적 性向이 많이 묻어나는 교과서로 설명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여는 역사』는 제작 과정의 의도처럼 한·중·일 세 국가가 연 관되어 민감했던 역사 인식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서술하였기 때문에 제주 4·3 사건의 내용은 서술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근·현대사』 교과서에 나타나 있는 제주 4·3 사건은 각 교과서마다 다루고 있는 내용과 성격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핀 국사 교과서와 檢·認定 교과서, 대안 교과서 등 총 10권의 교재에서 제주 4·3 사건을 깊이 있게 다룬 교과서는 1~2권에 불과하다. 제주 4·3 사건은 한국 전쟁 다음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무고한 민중들에 대한 대량 虐殺 등이 권력에 의해 隱蔽되었던 근·현대사의 커다란 상처이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가 갖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제주 4·3 사건의 중요성을 바르게 인식하며 학습하는 학생은 극히 드물다고 보여진다. 특히나 제주 4·3 사건이 교과서 내 어디에도 서술되어있지 않은 ‘천재교육’의 근·현대사 교과서를 선택해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은 교사가 교과서 이외의 학습 자료나 수업 내용을 달리하지 않는 한 제주 4·3 사건을 배울 기회는 전혀 없다. 따라서 교과서 선택에 따른 각기 다른 내용, 양적, 질적 차이를 보이고 있는 학습 현장에 본 論文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제주 4·3 사건에 대한 구술 자료를 활용한 역사 수업 방안은 그 필요성과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IV. 구술 자료를 활용한 역사 수업

이 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실제 수업에서 제주 4·3 사건을 어떻게 활용하여 학습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방법적인 면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구술 자료를 활용한 역사 수업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학습하는 학생이 직접 구술자를 면담하여 얻어 낸 결과물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의 구술 자료를 만들어 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구술 자료를 활용하여 수업에 활용하는 것이다. 구술 자료를 만들어 내는 수업 방법은 학생이 스스로 역사가의 입장이 되어 자료를 수집하고 생산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구술 자료를 활용한 수업을 통해서는 기존 교과서나 文獻 자료를 통해서는 얻어낼 수 없는 追體驗的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1. 역사 수업으로서의 구술 자료의 수집

수업을 통해 학생이 구술 자료를 직접 수집하는 것은 학생 스스로가 面談을 계획하여 面談을 실시하고 錄取되거나 촬영된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역사적 사고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돕는다. 面談 등을 통해 구술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비판적인 사고 의식을 갖게 된다. 구술 자료를 수집하게 될 주제에 대하여 정보를 획득하고 구술자가 구술하는 내용에 대하여 사전 조사한 내용과 비교할 수 있으며 부족했던 정보에 대해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구술자의 구술에 따라 학생은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질의응답을 통해 자료를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구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은 보통 사전조사, 실제조사, 녹취문 작성 및 보충조사로 구성될 수 있다.⁷⁰⁾ 사전조사는 구술자와의 面談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 할

70) 권미현, 앞의 글, p.123.

수 있다. 사전조사를 통해 학생은 어떠한 대상을 통해 구술 자료를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며 이는 구술자를 선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떠한 질문을 할 것이며 또한 어떤 방법으로 구술자의 구술 자료를 얻어내는가에 대한 준비가 이 과정에 들어간다. 실제조사는 구술자와 실제로 對面하여 面談하는 과정이다. 녹취문을 작성하고 보충조사를 하는 것은 면담이 끝난 후 그 결과물을 구술 자료로서 다시 만들어내고 불필요하거나 모자란 부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하여 완성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구술 자료 수집의 과정을 간략하게 본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4> 구술 자료 수집 과정

사전조사	실제조사	녹취문 작성 및 보충조사
구술자 선택 질문 준비 녹취방법 선택	면담	녹취된 면담 내용을 구술 자료화

1) 事前조사

(1) 구술자 선택

구술 자료의 수집에서 구술자를 선택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어떤 구술 자료를 수집할 것인가에 따라 거기에 맞는 적절한 구술자를 선택해야만 올바른 자료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제주 4·3 사건을 중심으로 구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 4·3 사건을 직접 경험했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한 세대의 구술자를 선택해야 한다. 가깝게는 학생들의 親·姻戚을 중심으로 구술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주변 人士 등을 구술자로 선택할 수 있다.

(2) 질문 준비

사전조사를 할 때 학생은 자신이 수집하고자 하는 주제, 즉 제주 4·3 사건에 대

하여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학습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구술자에게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질문을 준비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面談할 구술자의 대부분은 年老한 노인 분들이며 역사에 대한 전문가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적절한 질문을 선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런 질문을 만들기 위해 학생은 다양한 조사를 통해서 스스로 수업 내용에 대한 더 많은 이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토론과 같은 과정을 거쳐 질문을 준비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학생들이 질문을 준비하기 쉽지 않을 경우에 교사는 적절한 질문을 가르쳐 주거나 혹은 질문의 例示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학생의 구술 자료 수집을 도울 필요가 있다.

제주 4·3 사건에 관련된 구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학생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관련한 자료를 습득하고 학습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인 자료의 학습은 구술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서 학생의 이해를 돕고 구술자의 구술 내용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제주 4·3 사건이란 무엇인가?
- 제주 4·3 사건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가?
- 제주 4·3 사건으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하였는가?
 - 구체적인 피해 사례에 관하여 학습(가장 커다란 피해를 입었던 지역 등)
- 제주 4·3 사건이 끼친 영향은 무엇인가?

위와 같은 내용이 先行的으로 학습이 되어야만 구술자와의 면담에서 구술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며 질문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학생은 면담에 사용될 질문 혹은 질문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관련된 자료(문헌, 혹은 인터넷)를 통해 충분히 학습한 후 무엇을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에 대한 예비 질문지를 작성해 보는 것이 좋다. 우선적으로 작성된 예비 질문지를 구술자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은 구술자와의 면담에서 구술자의 정리된 생각을 얻어내는 데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구술자에게 거부감을 주거나 맞지 않은 질문을 미리 알아내어 질문을 수정하거나 불필요한 질문을 삭제하여 면담의 진행을 보다 원활하게

도울 수 있다. 질문지를 작성할 때에는 면담하고자 하는 주제를 세부적으로 나누는 것이 좋다. 이는 면담을 통해 구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핵심을 잃지 않고 일관성 있는 면담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풍부한 구술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구술자와의 친밀감이나 신뢰감이 필요한데⁷¹⁾ 이를 위해 학생은 구술자를 미리 찾아가 구술자가 학생에 대한 거부감이나 어색함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다음은 학생이 구술자와의 면담에서 사용할 질문지의 예시이다.

<질문지>

1.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구술자의 나이는 어떻게 되는가?
2. 사건 당시 구술자는 어느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는가?
3. 구술자는 사건이 일어나던 당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가?
4. 사건으로 인해 동네에서 사망한 사람의 수는 얼마나 되었는지?
5. 제주 4·3 사건으로 인해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는가?
6. 사건으로 인해 바뀐 점은 무엇이 있는가?

질문지에 들어갈 질문은 구술자의 경험에 따라 여러 가지 질문의 형태를 바꾸고 보완할 수 있다.

(3) 녹취방법 선택

면담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錄取 방법을 선정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녹음기 혹은 비디오 캠코더와 같은 장비를 이용하여 錄取를 할 수 있다. 녹취 장비를 사용할 경우 면담하는 장소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야외에서 녹취를 할 경우에는 소리가 퍼지거나 歪曲될 수 있기 때문에 실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⁷²⁾ 여기에 추가적으로 면담노트⁷³⁾를 사용하는 것은 면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71) 권미현, 위의 글, p.124.

72) 권미현, 위의 글, p.124~125.

73) 면담노트는 구술자에게 경청한다는 이미지를 주어 구술자로 하여금 구술하는 것에 대한 집중을 높여줄 수 있다. 또한 사실의 확인이나 면담 후에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노트에 많은 집중을 하게 되면 녹취하는 면담 자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메모를 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

2) 실제조사 (面談)

학생은 구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계획에 따라 구술자를 초청하거나 직접 방문 등 약속된 장소에서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면담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구술자의 자택이 가장 좋은 장소인데 이는 구술자가 심리적으로 가장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곳이며, 구술자의 과거 기억을 떠올리는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술자의 자택에서는 면담 도중에 구술 내용과 관계가 있는 사진이나 편지와 같은 추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구술자와의 면담에서 학생은 활동적이면서도 능동적인 듣기를 하여야 한다. 구술자와의 면담이 익숙하지 않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면담 이전 가족들과 함께 면담의 형식으로 대화하거나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연습을 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면담이 진행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학생이 구술자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는 신뢰감을 주는 일이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바와 관련하여 구술자와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면담이 시작되기 전 구술자에게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아도 좋음을 미리 周知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만 구술자가 곤란한 질문에 당황하거나 대답을 꺼려해 면담의 원활한 진행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은 구술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주의 깊게 傾聽해야 하며 聽取 도중 중요하게 생각되는 질문은 메모하여 구술자가 이야기하는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하도록 한다. 여기서 질문은 너무 길지 않고 구술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구술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에 잘 부합해야 한다. 또한 두 가지 이상의 질문을 한꺼번에 하지 말아야 하며 ‘예’, 혹은 ‘아니오’와 같은 단답형 대답이 나올만한 질문은 피하는 것이 좋다.

3) 녹취문 작성 및 보충조사

학생은 녹취문 작성을 통해 역사가가 史料를 조사하고 수집하는 방법을 경험할 수 있다. 녹취문을 작성하는 것은 자료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음성자료나 영상자료보다 읽는 것이 익숙하고 이용이 容易한 장점이 있다. 또한 필요한 부분을 빨리 검색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물론 학생들과의 수업을 통해 일반적인

녹취문을 작성하는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여러 학생들이 면담을 통해 얻어낸 녹취 자료는 녹음된 구술 그대로로서의 ‘구술 자료’ 혹은 구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만들 수 있는 ‘제주 4·3 사건 신문’, ‘제주 4·3 사건 현장 뉴스’, ‘포트폴리오’ 등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역사 수업에서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면담을 통해 알지 못했던 내용이나 事前 조사를 통해 습득한 내용과 相異한 내용을 접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하여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다.

이로서 역사 수업으로서의 구술 자료 수집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제시된 역사 수업으로서의 구술 자료 수집 방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5> 구술 자료 수집 방법

단계	세부 단계	활동 내용	주의점
사전조사	구술자의 선택 질문 준비 녹취 방법 선택	제주 4·3 사건의 목격자 선별 제주 4·3 사건에 대한 자료 수집 예비 질문지와 질문지 작성 구술 자료 수집에 필요한 장비 준비	면담 이전에 구술자와의 친밀감을 갖는 것이 중요 구술자가 대답하기 불편한 질문은 피하여 질문지 작성
실제조사	면담	약속된 장소에서 면담 진행 구술자의 이야기를 능동적으로 경청 면담노트 활용	면담중 질문에 유의
녹취문 작성 및 보충조사	녹취문 작성 보충 조사	구술 자료로서의 녹취문 작성 신문의 형태를 활용한 제주 4·3 신문 만들기	추체험, 내러티브 쓰기 등의 다양한 자료 활용 모색

		뉴스의 형태를 활용한 제주 4·3 뉴스 만들기 포트폴리오 작성 면담 후 보충 조사	
--	--	--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술 자료의 수집은 짧은 수업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수업 형태이다. 교사는 여러 차시의 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구술 자료의 수집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고 질문을 만들며 수집된 구술 자료를 또 다른 형태의 자료로 재구성하는 부분까지를 모두 관찰해야 한다. 자료 수집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여서도, 역사 수업에서의 구술 자료 수집을 낮설어하며 어려워하는 학생에게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하도록 두어서도 안된다. 교사는 그 중간에 위치해 학생들이 정해진 학습 목표에 다가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입장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또한 구술 자료 수집은 한 명의 학생 힘으로 해내기엔 힘든 부분이 많다. 組別 활동을 통해 학생들 모두가 서로 책임감을 가지고 구술 자료 수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2. 구술 자료를 활용한 역사 학습 모형

학생들이 면담을 통하여 얻은 구술 자료나 기존에 제작된 구술 자료는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는 ‘제주 4·3 사건’을 더욱 생생하게 이해하고 문자로 암기되던 사실에 대하여 追體驗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특히 학생 스스로가 구술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학습자의 참여도와 성취도가 대단히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제주 4·3’에 관련된 구술 자료를 활용한 수업 모형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또한 이 수업 모형은 ‘제주 4·3 사건’의 慘狀을 학생들이 追體驗的 학습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기준을 설정하고 사건에 관련된 자료를 포함하여 구술 자료를 활용한

다.

이 수업 모형에서 ‘제주 4·3 사건’에 대한 학습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학습목표

- ① 다양한 자료를 조사하고, 조사한 자료를 통하여 ‘제주 4·3 사건의 역사적 상황을 파악한다.
- ② 면담을 통하여 구술 자료를 만들어 정리할 수 있다.
- ③ 구술 자료를 통하여 ‘제주 4·3 사건’의 피해를 추체험할 수 있다.
- ④ ‘제주 4·3 사건’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학습목표를 수업에서 제시하여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어떤 내용을 학습할 것인가에 대해 미리 알 수 있도록 한다. 학습목표 ①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구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미리 先行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이미 학생이 학습할 내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認知하고 있다는 前提가 포함된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 교사는 학생들이 본 수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학습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적절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적절한 자료로는 ‘제주 4·3 사건’의 概要的 설명을 포함한 자료가 적절하다. ①과 ②의 경우에는 이전 수업 시간 혹은 방과 후 활동의 내용으로 여길 수 있으며 본 수업 이전의 先行학습으로 인식할 수 있다.

<표-6> 제주 4·3 사건의 개요⁷⁴⁾

발단 배경	광복 이후의 다양한 경제적 문제와 군·경찰의 부조리 등의 사회문제가 제주도의 민심을 악화시키고 있었으며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좌익 세력의 활동, 군정 경찰과 서북 청년단체 대한 반감 등이 복합적으로 내재해 있었다.
원인	1947년 3월 1일 3·1절 기념 시위대에게 경찰이 발포하여 희생자가 발생한 것이 도화선이 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제주에서는 경찰의 발포에 항의해 관공서, 민간기업 등 제주도 전체의 직장의 95% 이상이 참여한 ‘3·10 총파업’

74)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와 홈페이지 <http://www.jeju43.org>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이 일어났다. 이 사건에 대하여 미군정은 ‘경찰의 발포’ 보다는 ‘남로당의 선동’에 비중을 두고 강경적으로 대응하였다. 강경대응으로 인하여 수세에 몰린 남로당이 1948년 4월 3일 무장대를 조직하여 12개의 지사와 우익 단체들을 공격하면서 시작되었다.
전개 과정	1948년 4월 3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군·경찰, 우익세력으로 구성된 ‘토벌대’는 좌익세력을 주축으로 하는 ‘무장대’의 소탕을 명분으로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산간 마을의 가옥을 불태우고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였다.
결과와 의미	수만 명의 무고한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그 피해의 규모와 진상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이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을 학생들은 자료 조사를 통하여, 혹은 교사의 지도에 따라서 학습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본 수업이 ‘제주 4·3 사건’을 바로 알고 追體驗 한다는 목적이 정해져 있으므로 전개 과정이나 결과에서 서술된 피해의 규모를 실제 기록된 표와 같은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좋다.

<표-7> 기록별 인명피해 숫자⁷⁵⁾

숫자		언급 시기	언급 주체	전거	비고
희생자	이재민				
15,000		49.2.15	스위니 신부	미대사관문서 49.3.14	
20,000		49.3	연합신문	『연합신문』 49.3.4	
	64,378	49.3	도민대표 6명	『동아일보』 49.3.12	
15,000		49.3	주한미육군사령부	주한미육군사령부 보고 49.4.1	
17,000		49.4.2	LA한인들	LA한인들이 트루먼대통	

75)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의 책, p.364.

				령에게 보낸 제안서 49.4.2	
15,000		49.4.10	뉴욕타임즈	『뉴욕타임즈』 49.4.10	
15,000		49.5	미군사고문단	미대사관문서 49.5.18	
	7만여	49.5.17	장기영	『국무회의록』 49.5.17	
40,000		49.6	김영진 특파원	『경향신문』 49.6.28	
30,000		49.6	제주도 당국	『조선중앙일보』 49.6.28	인구 182,942(46 년) 250,400(49 년)
29,702	97,703	49.9	서울신문	『서울신문』 49.9.1	내무차관 일 행과 동행 취 재
30,000	8만	49.9	서재권	『신천지』 49.9월호	
30,000		50.2.10	김충희 도지사	『국무총리실서류』 50.2.10	
27,719	78,534	50.4	김용하 도지사	미대사관문서 50.5.23	
60,000		52.9.27	라이언 신부	라이언의 서한 52.9.27	
27,719		53.	제주도청	『제주도세일람』	
65,000		60.5.30	고담룡 국회의원	『제주신보』 60.5.31	
50,000~60,000		60.7	고창무	『조선일보』 60.7.17	
40,000~50,000		61.1.26	김성숙 국회의원	『조선일보』 61.1.26	

이와 같은 표의 제시는 학생들이 사건의 피해에 대하여 좀 더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렇게 표를 제시하고 확인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표에 나타난 피해 숫자를 학생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설명을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위의 표에 보이는 바와 같이 1960년 7월 『조선일보』에 따른 사망 피해자의 숫자는 50,000~60,000명인 것에 대하여 교사는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예를 들며 설명을 하여야 한다. 교실의 인원수를 예를 들거나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스포츠와 관련되어 월드컵 경기장, 야구 경기장 등의 관중 수와 비교해 설명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숫자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를 도와 그 피해 규모를 쉽게 짐작할 수 있게 된다.

앞의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학생들이 ‘제주 4·3 사건’에 대해 이해한 후에는 구술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追體驗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실제 수업에서 사용되는 구술 자료는 학생들 스스로가 수집을 통하여 만들어진 자료가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만들어진 다양한 구술 자료를 활용하여 진행한다.

<구술 자료>

그날 갑자기 총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마을 후배가 뛰어 도망가면서 ‘아무개도 죽어수다. 마구 총질하니 형님도 빨리 피합서’라고 외치더군요. 난 황급히 방으로 숨었습니다. 그런데 곧 앞집에 사는 부달규 씨의 아내가 달려와 ‘남편이 죽어가니 도와달라’고 사정했습니다. 할 수 없이 방에서 나오려는데 우리집에도 군인들이 들이닥쳤어요. ‘손들어!’ 하는 소리에 나는 무조건 ‘살려줍서, 살려줍서’ 하며 빌었어요. 집밖으로 끌려나오는데 어머니가 유혈이 낭자한 채 들어와 마당에 쓰러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난 놀라서 ‘어머니!’ 하고 달려들어 안았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은 내 뒤에서 총을 쏘았습니다. 총알은 내 엉덩이에서 사타구니까지 관통해 부등켜 안은 어머니의 왼쪽 허벅지를 뚫었습니다. 어머니는 집 앞에서 얼굴 광대뼈 밑을 관통하는 총상을 입은 데다가 집안에 들어와 또 총상을 입은 것입니다.⁷⁶⁾

서귀면 서호리에 살던 김만호(당시 16세)의 증언

토벌대가 마을을 불태우자 온가족이 인근 야산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1949년 1월 9일 군인들에게 발각됐습니다. 군인들은 아버지(김병하, 34)를 현장에서 총살하고 어머니와 우리 5남매를 학교에 가렸습니다. 학교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의귀국교 4학년 동급생

76) 濟民日報4·3취재반, 『4·3은 말한다』 제4권, 전예원, 1997, p.269.

인 김일석도 있었습니다. 그는 ‘어제 들어왔다’ 고 하더군요. 군인들은 수감자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원칙도 없이 20세부터 50세에 이르는 사람들을 지목하며 ‘너 나와!’ 하며 끌어냈습니다. 1월 11일에는 어머니가 지목됐습니다. 어머니(강매전, 35)는 피신중 딸을 낳아 보름도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어머니를 포함해 10여 명이 함께 끌려 나갔는데 곧 총성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 마저 돌아가시니 우린 졸지에 고아가 됐습니다. 장남인 나에게 12살, 9살, 3살, 그리고 생후 보름된 갓난 동생이 남겨졌습니다. 젖을 못 먹어 울어대는 아기를 달래고 있는데 아버지와 알고 지내던 현 면장님이 나타났습니다. 현 면장님은 군인들에게 부탁해 우리를 남원리에서 올라온 급수차에 태웠습니다. 우리 외에도 7~8명의 아이들이 급수차에 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려온 다음날 새벽 폭도들이 군인들을 습격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노인과 어린아이까지 모두 총살했습니다. 국민학교 동급생인 김일석도 그 때 죽었습니다.⁷⁷⁾

남원면 의귀리에 살던 김명원의 증언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와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하루는 소꿉장난을 하고 있는데 스리쿼터가 집 앞에 멈춰 서더니 어머니 이름을 대면서 찾는게 아닙니까. 난 집으로 뛰어 들어가 ‘어머니, 순사들이 왔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하시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뒤이어 순경들이 들어와 어머니를 차에 태웠습니다. 나는 막 울면서 차에 매달렸어요. 순경들이 밀쳐내도 또 매달렸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큰아버지 집에 가 있어라. 나는 일본에 다녀오는 것이다’고 하셨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에게 닥칠 일을 직감하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주위에서는 ‘아이고, 불쌍한 것! 네 어머니는 그때 쌀만 주지 않았어도 죽지는 않았을텐데...’ 라고 했습니다. 산에서 쌀을 요구할 때 쌀 두 말을 주었는데 그게 발각됐다는 겁니다. 산쪽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총살을 당할 만큼의 죄가 될 수 있습니까?⁷⁸⁾

서귀면 신호리에 살던 김정자의 증언

아버지가 제주읍으로 압송된 후 면회를 다녀온 어머니에 의하면 모진 고문을 당해 온몸에 멍이 들었다고 합니다. 곧 풀려난다고 하던 분이 그후 소식이 없어 백방으로 알아보니, 1950년 7월 16일 새벽 1시께 아버지를 포함해 20여 명을 태워 산지항을 떠난 배가 오후에 빈배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몸에 돌을 매달아 바다에 빠뜨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77) 濟民日報4·3취재반, 『4·3은 말한다』 제5권, 전예원, 1998, p.139~140.

78) 위의 책, p.157~158.

를 끌고 간 자들은 어머니에게 ‘아직 살아 있다. 돈을 주면 풀어 주겠다.’면서 뜯어갔습니다. 4·19 직후 형은 당시 제주 주둔 사령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곧 5·16이 발생해 무위로 돌아갔습니다.⁷⁹⁾

서귀면에 살던 강완철의 증언

학생들은 이와 같은 구술 자료를 접하며 교과서에 서술되어있지 않은 사실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학생들은 학생들 스스로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단지 ‘사건이 일어났다.’ 혹은 ‘피해가 발생하였다.’로 서술되어 있던 교과서 속의 ‘제주 4·3 사건’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된다. 구술 자료를 수집하면서 구술자로부터 듣고 질문하는 과정에서부터 학생들은 ‘제주 4·3 사건’을 體驗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이러한 과정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제주 4·3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스스로 교과서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주의 깊게 살필 수 있으며 자신이 스스로 학습했던 내용과 구술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며 批判的 思考를 가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여기에 앞서 교사는 구술 자료를 활용한 역사 수업을 진행하면서 구술 자료가 갖는 주관성을 학생들이 認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활용되고 있는 구술 자료가 사건 전체를 대표하는 자료가 될 수 없으며 경험한 일부분의 목소리라는 점을 認識시킬 필요가 있다. 追體驗을 통해 ‘제주 4·3 사건’을 학습하면서 구술자의 입장에서만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사건 전체의 맥락을 이해가 前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과거 사실에 대한 다양한 認識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구술 자료를 활용한 역사 수업은 現行의 교육과정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점들이 존재한다. 우선적으로 역사 수업이 전체 수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만 보더라도 이러한 구술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수업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論文의 초반에 제시된 다양한 대체적 수업 방안들이 실제로 적용되는 예를 보면 한 차시에 가능한 것들이 아닌 2~3차시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업 시간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행 평가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論文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구술 자료를 활용한 역사 수

79) 위의 책, p.186.

업 방법은 역사 수업 전체를 완벽히 대체한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구술 자료를 활용한 역사 수업 방법이 다양한 수업 방법 형태의 하나로써 점점 학생들로부터 외면되고 있는 역사과의 현실적 문제에서 부분적인 대체적 방법으로 認識되어질 수 있다. 또한 사실 나열과 暗記로 이루어져 있는 역사 수업에 다양한 목소리를 등장시켜 학생들로 하여금 새로운 역사 認識을 圖謀할 수 있다는 점은 구술 자료를 활용한 역사 수업 방법의 커다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사건 전체의 올바른 이해와 더불어 구술 자료를 활용하는 역사 수업은 그저 텍스트로써, 먼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 아니라 지금의 누군가가 살아가는 모습이며, 학생 스스로가 겪고 있는 또 다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느끼게 할 것이다.



V. 결론

최근에 이르기까지 역사 교육은 實證 史學의 기준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역사 수업에서 학생들은 ‘과거 사실에 대한 客觀的인 知識’을 학습하였고, 그러한 학습 활동을 통해 올바른 역사관이 형성될 것이라 믿어왔다. 하지만 학생들의 대부분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억만을 가지고 있을 뿐 歷史的 思考力은 길러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유일한 역사 학습 교재인 교과서가 학생들의 올바른 歷史 認識과 思考力 增進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逆說的으로 보여주고 있다. 교과서는 역사를 정치·경제·사회·문화라는 틀로 분류하였고 그 속에서 커다란 사건과 특별한 인물에 대한 내용만을 담았다. 결국 교과서로만 이루어졌던 역사 학습은 학생들로 하여금 거대 談論과 사회 구조, 일어났던 사건에 대하여, 그리고 역사에 이름을 남긴 특정 인물에 대한 일대기를 과거 시대의 모든 것으로 여기게 만들었다. 교과서 속에는 계급과 민중, 혹은 대중이라는 集合名詞로 불리는 집단만이 존재할 뿐 시대를 살아왔던 하나하나의 목소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역사 교육의 문제점에 注目하여 지금까지도 민중의 많은 목소리를 담기 위해 연구, 수집되는 제주 4·3 사건이 교과서 안에서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되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역사 교육이 어떠한 방법으로 제주 4·3 사건의 고통을 겪은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현재까지의 역사 수업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왔는지,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고 대안적 방법으로 제시된 수업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하지만 구술 자료를 활용하여 역사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구술 자료의 정의를 살펴 보고 구술 자료를 수업에 활용하는데 그것이 자료로서 妥當性을 갖는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였다. 구술 자료가 역사 수업의 자료로서 妥當性을 갖는가에 대한 질문은 현재 구술사가 역사학에서 갖는 위치와 계속

적인 구술 자료의 연구와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충분히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實證的 역사학의 限界에서부터 시작된 인접 학문과의 교류는 특히 프랑스의 아날학파가 등장하면서 역사학을 사회사, 사회문화사 등의 또 다른 모습으로 재탄생 시켰으며, 구술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인류문화사, 미시사 등과 같은 새로운 역사의 분야 또한 개척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술 자료의 사료적 가치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어져 왔다. 사실 문헌 자료가 구술 자료보다 史料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은 문자로 기록된 不變性에 起因한다고 보인다. 하지만 문헌 자료의 사료적 가치 또한 절대적일 수 없다. 구술사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문헌 史料의 연구로 이루어진 역사는 결국 문헌 史料를 해석하는 역사가에 의해 재구성되는 것이지 문헌 자체가 역사적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구술 자료가 갖는 한계를 문헌 자료도 갖는다는 입장에서 볼 때 구술 자료와 문헌 자료는 相互補完的인 형태의 자료로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점은 구술 자료가 교과서로 이루어지는 역사 수업에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글에서는 실제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를 포함한 근·현대사 교과서에서 과연 제주 4·3 사건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제주 4·3 사건이 교과서 내에서 어떠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어떠한 주제로 다루고 있는가에 대한 단일적 측면, 얼마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서술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량적 측면, 서술되어 있는 사건의 내용을 학생들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因果關係가 명확히 서술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적 측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檢·認定 교과서임에도 불구하고 각 교과서는 세 가지 분석의 틀에서 각기 다른 樣相을 보였다는 점이 특이한데, 각 학교마다 선택한 檢·認定 근·현대사 교과서가 다르므로 각각의 교과서에 서술된 제주 4·3 사건의 내용과 비중이 다르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均等한 내용의 역사 학습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균등하면서도 다양한 역사 학습의 방법으로 대안적인 수업 모형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先行된 분석들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제주 4·3 사건과 관련하여 구술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수업 모형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구술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역사가가 사

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다. 또한 수집한 자료에서 얻어지는 追體驗을 통해 역사란 교과서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모습의 일부임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한동안 실증적 역사, 과학적 역사라는 테두리에 갇혀서 巨視的인 사회상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대에서 이제는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해 전체를 다시 眺望해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도 정통사학과 미시사의 사이에서 많은 이견과 주장이 反目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가장 相異하게 대립하는 문헌과 구술의 사료적 가치에 대한 판단에서 어느 하나만이 정확한 사실이며 진정한 역사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산의 모습도 산이고 산 속에서 살펴보는 산의 모습도 산이라는 말처럼 어느 것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의 모습인 것이다. 하지만 현재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제까지 전체의 모습만을 중요시하는 과정에서 看過되었던 작은 모습들을 하나하나 밝힘으로써 전체의 틀만을 바라보는 역사가 아닌, 전체라고 이름 지어진 엘리트계층만의 역사가 아닌 과거를 살아온 대부분의 사람들, 즉 민중의 역사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점에서 본 논문이 제시한 구술 자료를 활용한 역사 수업 방법은 배제되었던 개개인의 목소리를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있다. 하지만 구술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의 한계로 인하여 그 범위가 근·현대로 한정된다. 또한 구술 자료의 근거와 정확성에 대하여 완전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실제 현장에서 역사 수업이 갖는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실현 가능성 등은 구술 자료를 활용한 역사 수업 방법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역사학과 역사 교육 모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구술 자료에 대한 다양한 확보가 더욱 필요하다.

참고문헌

교과서

국사편찬위원회, 『고등학교 국사』, 교학사, 2002.

김광남 외 4인, 『한국 근·현대사』, 두산, 2003.

김종수 외 3인, 『한국 근·현대사』, 법문사, 2004.

김태웅 외 5인,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2003.

김홍수 외 5인, 『한국 근·현대사』, 천재교육, 2004.

한철호 외 5인, 『한국 근·현대사』, 대한교과서, 2003.

대안교과서

김육훈 외 4인,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2』, 휴머니스트, 2002.

송호정 외 4인, 『아틀라스 한국사』, 사계절, 2004.

이영훈 외 11인, 『한국 근·현대사』, 기파랑, 2008.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미래를 여는 역사』, 한겨레신문사, 2005.

학위논문

- 권명숙, 「구술기록의 수집 절차에 관한 연구-민간인학살사건 다큐멘테이션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기록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7.
- 권선영, 「구술성을 바탕으로 한 설화 교육」,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김동현,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친일과 문제에 대한 서술 : 6종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분석」, 서울시립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 손보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탐구활동> 분석을 통한 학습 모형 개발」,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 이원심,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지역여성의 역사 : 경북 영양군 한티리의 세 여성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 이주은, 「구술사를 활용한 역사학습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 장진철, 「구술자료의 관리에 관한 연구 : 국내 연구소 및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1.
- 최기자, 「여성주의 역사쓰기를 위한 여성 '빨치산' 구술생애사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여성학 협동과정 석사학위 논문, 2001.
- 허영선, 「제주4·3시기 아동 학살 연구 : 생존자들의 구술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 협동과정 석사학위 논문, 2007.
- 허현주, 「의화단 운동에 대한 한·중·일 교과서 서술 내용 비교 분석」,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학술지 논문

김기석 · 이향규, 「구술사 : 무엇을, 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술사 이론 · 방법 워크숍 자료집』, 2003.

김귀옥, 「한국 구술사 연구 현황, 쟁점과 과제」, 『사회와 역사』 71, 한국사회사학회, 2006.

김귀옥, 「구술사 연구현황과 구술사 아카이브의 구축」, 『한국기록학회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국가기록원, 2005.

김민정, 「참전미군의 구술 자료로 본 한국전에 대한 기억과 역사의식의 재구성」, 『사회과교육』 44,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05.

김봉중, 「미국의 구술사 연구-미국 역사학의 변천과정 속에서」, 『전남사학』 제 16집, 전남사학회, 2001.

김한중, 이영효, 「비판적 역사 읽기와 역사쓰기」, 『역사교육』 81, 역사교육연구회, 2002.

김한중, 「역사적 사고력의 구성 요소와 역사 수업의 발문」, 『사회과교육』 29,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1996.

김한중, 「역사수업도구로서 내러티브 구성형식과 원리」, 『사회과교육학 연구』 3,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1999.

- 권기숙, 「세대간 기억 전수」, 『한국사회학』 제38집 5호, 한국사회학회, 2004.
- 권미현, 「구술사료의 기록학적 관리방법 연구」, 『기록학연구』 10, 한국기록학회, 2004.
- 남신동, 「미국 구술사의 발달과 연구 동향」, 『현황과 방법, 구술·구술자료·구술사』, 한국사 연구지원 보고자료집, 국사편찬위원회, 2004.
- 류방란, 「구술사 연구의 방법과 활용」, 『한국교육』 25, 한국교육개발원, 1998.
- 박찬식, 「4·3연구 추이와 전망」, 『제주작가』 제2호, 제주작가회의, 1999.
- 신복룡, 「제주 4·3 사건」, 『동아시아 연구논총』 제12집,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2002.
- 양호환, 「내러티브의 특성과 역사학습에의 활용」, 『사회과학교육』 2,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사회교육연구소, 1998.
- 염미경, 「전쟁연구와 구술사:아래로부터의 한국전쟁연구를 위한 새로운 방법론」, 『동향과전망』 51, 한국사회과학연구소, 2001.
- 염미경, 「지방사연구에서 구술사의 활용현황과 과제」, 『역사교육』 98, 역사교육연구회, 2006.
- 오유석, 「한국 근·현대 사회사 연구와 구술기록」, 『기록학연구』 9, 한국기록학회, 2004.

- 윤택림, 「기억에서 역사로-구술사의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인류학』 25-1, 한국문화인류학회, 1994.
- 윤택림, 「역사인류학자의 시각에서 본 역사학」, 『역사문제연구』 제6호, 한국문화인류학회, 2001.
- 이미미, 「역사가의 사고과정이 드러나는 서술의 특징과 교재개발 방향」 『역사교육』, 역사교육 73호, 역사교육연구회, 2000.
- 이영효, 「내러티브 양식의 역사서술체제 개발」, 『사회과교육』 42,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03.
- 이용기, 「역사학, 구술사를 만나다 :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본 구술사의 현황과 과제」, 『역사와현실』 통권71호, 한국역사연구회, 2009.
- 정혜경, 「한국 근현대사 구술자료의 간행 현황과 자료가치 : 지운 김철수를 중심으로」, 『역사와현실』 33, 한국역사연구회, 1999.
- 함한희, 「구술사와 문화연구」, 『한국문화인류학』 33-1, 한국문화인류학회, 2000.
- 허영란, 「구술과 문헌의 경계를 넘어서」, 『현황과 방법, 구술·구술자료·구술사』, 한국사 연구지원 보고자료집, 국사편찬위원회, 2004.
- 허영란 외 1인, 「구술자료 수집의 기획과 실행」, 『현황과 방법, 구술·구술자료·구술사』, 한국사연구지원 보고자료집, 국사편찬위원회, 2004.

단행본

- 국사편찬위원회, 『지역사·구술 자료 수집 정리의 실제와 과제 : 발표요지』, 국사편찬위원회, 2005.
- 김귀옥, 「아래로부터 반공 이데올로기 허물기-정착촌 월남인의 구술사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43, 한울, 1999.
- 김동윤, 「4·3문학의 전개양상과 그 의미」, 『기억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역사비평사, 2004.
- 김동원,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5·18의 기억과 역사』, 5·18기념재단, 2006.
- 김동진, 「제주지방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지방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연구회, 경인문화사, 2000.
- 김영범, 「기억투쟁으로서의 4·3문화운동 서설」, 『기억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역사비평사, 2004.
- 김한중 외,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책과 함께, 2005.
- 김한중 외, 『한국근현대사 교육론』, 선인, 2005.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포괄적 과거사 정리 : 화해와 상생의 미래를 향해』,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2008.
- 양호환 외, 『역사교육의 이론과 방법』, 삼지원, 1997.
- 역사신문편찬위원회, 『역사신문』, 사계절출판사, 1995.

- 윤택림, 『(새로운 역사 쓰기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 아르케, 2006.
- 이보형·황해성, 『미국 역사학의 역사:역사사를 통해 본 미국사 서술의 변천』, 비
봉출판사, 2000.
- 이상태, 『현황과 방법, 구술·구술자료·구술사』, 국사편찬위원회, 2004.
- 이용기, 「구술사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한 제언」, 『역사비평』 58, 역사비평사,
2002.
- 이흥환, 『구술한국현대사』, 미완, 1986.
- 전국역사교사모임,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휴머니스트,
2002.
- 정근식, 『교통의 역사 : 원폭의 기억과 증언』, 선인, 2005.
- 정선영 외, 『역사교육의 이해』, 삼지원, 2005.
- 제민일보4·3취재반, 『4·3은 말한다』 제4,5권, 전예원, 1998.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제주
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 한국교육개발원, 『남북한 중등학교 역사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7.

한국구술사연구회, 『구술사 : 방법과 사례』, 선인, 2005.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 풀빛, 2001.

Georg G. Iggers 저, 임상우·김기봉 역, 『20세기 사학사』, 푸른역사, 1998.

Lynn Hunt 저, 조한욱 역, 『문화로 본 새로운 역사 : 그 이론과 실제』, 소나무, 1997.



ABSTRACT

Method of History Lesson Utilizing Oral History

- focusing on 4·3 Jeju massacre -

Young-Key, Park.

Major in History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 Hee University

The history of Positivism, starting from Ranke, has been considered as if it had been occupied an absolute position in research historical methodology. Scientifical verification of literatures have been the basic and the beliefs that literatures can only be the source of studying history have been considered the most fundamental assets that historians should have. However, positive history has been pointed out its limits and found ways to interact with other studies. Histories which had once been used to figure out the frame of society and to study particular elite classes started to draw various research methodologies, amalgamating with studies related to social sciences. Especially, oral history has been reintroduced as a field of history when it encountered with anthropology. Historical narration referring to oral statements enabled 'History from below' and created an opportunity to introduce various voices, which had frequently been neglected, to come to the historical forefront.

Researching oral history starting 1990's in Korea began to liven up since it accepted theories of western oral history. There has been a research going on assuming the form of getting to the bottom around the social problems, which had suffered oppression on a political stance in the past. One of the typical incidents is 4·3 Jeju massacre, which had been through investigation and ended up enacting Special Law at the national level.

4·3 Jeju massacre means a lot in Korean modern history. Apart from the fact that the massacre was a big tragedy which caused tremendous damage next to Korean War, 4·3 Jeju massacre needs a lot more research because it was caused by inner conflict from competing opinions over establishing separate government within South Korea, because revolving the conflict assumed the form of firm suppression by force, because many innocent civilians had been massacred as their human right was totally neglected, and because all these facts had completely been concealed so the truth was never told for a long time. My research started with the question of how students are learning this important issue, 4·3 Jeju massacre. I have analyzed the content of 4·3 Jeju massacre in history as well as modern history textbooks and examined whether the textbooks are conveying the incidents fully or not. From the results I analyzed, the event is not fully described in the textbooks. All the different publishing companies have compiled different contents about 4·3 Jeju massacre and some textbooks do not even mention the incident. These facts reveal that history lessons conducted with textbook only are not appropriate for understanding the specific information or figuring out the historical fact. As an alternative to current history lessons, I have suggested a history lesson using oral history.

History class using oral statements of history suggests students the way to collect them. Through the process of collecting oral history, students are able to experience of dealing with materials as if they were historians and

to acquire additional knowledge of 4·3 Jeju massacre. Also, they are able to look into various aspects of the event which do not appear in the textbook by reorganizing the curriculum with what they have collected.

While historical studies are combined with fields of social science and being researched in a variety of forms, history education sticks to the previous teaching method. That is, students are memorizing contents in the textbook just like students in the past. If teachers force students to memorize simple historical facts, students will never get awareness of them and will have difficulty developing historical thinking skills and imaginative power. It also hinders them from understanding certain times through the events in the past and cultivating power of criticism as well as proper values. Given the reality of history education, history teaching method utilizing oral history could provide students with different perspectives of an event and develop historical imagination. Also, students will be able to foster abilities to see the historical event in the different ways by learning facts which are not written in a textbook.

Current effort from academic circles of history, trying to examine and collect various oral history other than 4·3 Jeju massacre, should continue to those who teach history. History lessons using various materials and methods could elicit students' interest in history and so it could serve as a foundation of their healthy awareness and criticism about history.